

하나님을 힘써 알자

The Pursuit of God

A. W. 토저 지음
신광철 옮김

www.voamonline.com

The Pursuit of God

“Then shall we know, if we follow on to know the Lord:
His going forth is prepared as the morning.” (Hosea 6:3)

A. W. Tozer

Translated by
Kwang Chul Shin

2010

The pursuit of God by A. W. Tozer is not copyright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April 23, 2008.

www.voamonline.com

차 례

추천서	4
머리말	5
1.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	6
2. 마음을 비운 자의 복	10
3. 휘장을 제거함	14
4. 하나님을 아는 것	20
5. 우주적으로 임재 하심	24
6. 말씀하시는 음성	28
7. 영혼이 자세히 바라봄	32
8.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회복	37
9. 온유와 안식	41
10. 생활로 행하는 성례	44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 때에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호세아6:3 kjv)

주 천 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한 지극히 높으신 그의 위엄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해하려는 열심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내적 삶에 대하여 탁월하게 연구한 것이 여기 있다. 그것은 시카고의 한 목회자가 저술한 이 책이다.

누가 다윗이 시편 23편을 시카고의 사우스 할스테드(South Halsted)가에서 기록했으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으며, 또는 중세기의 어느 경건주의자가 광활한 평지 위에 끝없이 펼쳐진 바둑판 같은 길들의 어느 목조가옥 이층 작은 서재에서 영감을 받았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곳의 길들은

복잡한 삶이 교차하는 곳,
인종과 씨족의 고향소리가 울리는 곳,
비참함과 빈곤의 서식지,
공포의 흑암이 드리워진 문간,
탐욕의 유혹이 숨어있는 거리들...

하지만, 뉴욕의 프랭크 마손 노스(Frank Mason North)박사가 그의 불멸의 시(poem)에서 말한 것처럼, 토저(Tozer)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기적 다툼의 소음 위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오 인자(Son of Man)시여.

나와 저자와의 친분 관계는 그의 교회를 몇 번 방문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작이다. 나는 거기서 독학으로 학자가 된 분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신학서적과 경건서적의 훌륭한 장서에서 많은 서적을 읽는 학자였으며, 밤 늦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책은 그의 오랜 묵상과 많은 기도의 결산이다. 이것은 설교 모음집이 아니다. 이 책은 강단과 교인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다룬다. 이 책의 모든 장을 종합하면 모세의 기도 중에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8) 이거나, 바울의 감탄문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롬11:33) 라고 하겠다. 이 책은 머리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요, 마음에서 나온 신학이다.

이 책에는 깊은 통찰력, 문체의 침착성, 그리고 후련하게 하는 견해의 다방면성이 있다. 저자는 적게 인용을 했지만 세기의 성인들과 신비가들인 어거스틴(Augustine), 구사 사람 니콜라스(Nicholas of Cusa), 토마스 켐피스(Thomas a Kempis), 본 휴겔(von Hugel), 휘니(Finney), 웨슬리(Wesley)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모두 십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마음 구석구석까지 미치며, 매 장을 끝내면서 드리는 기도는 강단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장들을 읽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꼈다.

이 책은 모든 목사, 선교사, 헌신 된 크리스찬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하나님에 관한 심오함과 그의 풍성한 은혜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겸손의 본질을 언급한다.

Samuel M. Zwemer
New York City

머 리 말

거의 온 세상이 어두움에 처해있는 이 시기에 희미하나마 한 가지 기뻐해야 할 빛이 보인다. 그것은 보수적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실재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 따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갈망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에서 실컷 마시기까지는 갈증을 풀지 못할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어느 종교 영역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실제적 부흥의 유일한 전조이다. 그것은 여기 저기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손 바다만한 구름(엘리아의 종이 갈멜산에서 바라본-역자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동반해야 하는 놀라운 경이감,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그 경이감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기근을 보고 깨달아야만 한다. 오늘의 복음주의는 모양새를 바꾸기 위하여 제단을 준비하고 희생물의 각을 떠서 차려놓았으나, 오만한 갈멜산 위에는 불의 징조가 없다는 것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제단의 돌들을 점검하고 각을 떠 놓은 희생물들을 정돈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우려하는 소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제단을 사랑하고 제물을 즐거워하지만, 계속 불이 보이지 않는 제단에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들은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시편의 저자들이 노래한 그리스도 사랑의 깊음을 맛보려고 갈망한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리의 원리들을 바르게 설명하는 성경 교사들은 많다. 하지만 그들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해마다 믿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데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그들의 개인적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솔직히 그들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망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사역하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강단은 그렇지 못하다. 밀톤(John Milton)이 느꼈던 충격적인 문장, 즉 “끓주린 양들이 쳐다보지만 먹이는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식탁에 실제로 앉아있는 동안 그들이 끓주리고 있음을 목격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웨슬리(Wesley)의 말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정설 또는 바른 견해라는 것은 기껏해야 종교의 극히 빈약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바른 견해 없이는 바른 감정(tempers)이 존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른 감정이 없이 바른 견해는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나 바른 감정 없이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견해는 가질 수 있다. 사탄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성서공회들과 말씀을 효과적으로 널리 보급한 다른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른 견해” 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영적 예배가 쇠퇴하고 있음을 보고 놀란다. 교회의 위대한 부문인 예배의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상실 되었으며, 그 예배의 현장에는 “프로그램” 이라는 이상하고 이질적인 것이 찾아 들었다. 그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는 무대에서 빌려온 것이며, 슬프게도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로 간주되는 대중 서비스의 유형(type)이 되어 있다.

바른 성경 해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도 신약교회(a New Testament Church)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해설은 듣는 자들에게 참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채 그들을 돌려 보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에게 자양분만을 공급하는 단순한 말들 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듣는 자들이 개인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듣는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성경은 그 문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도 만족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그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의 심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신의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이 책은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심스레 시도하였다. 이 책은 평범한 책이지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영적 실재가 내 마음에 찾아와 발견되게 한 면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책이다. 나보다 앞서간 분들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거룩한 이 신비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여기 나의 불꽃이 비록 크지는 않을지라도 실재이며, 누군가가 이 불꽃으로 자신의 촛대에 옮겨 붙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A. W. Tozer
Chicago, Illinois, June 16, 1948

1.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8)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prevenient grace)의 교리를 가르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이 애써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한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이전에 그의 마음 속에 깨닫게 하는 일이 틀림없이 먼저 일어난다. 그것이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그 하나님의 간섭은 갈망하고 바라며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의 신비스러운 원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충동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 6:44)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선행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내심으로써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려는 충동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충동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들고...” (시18:35).

이러한 하나님의 “붙들어주시기”와 인간의 “따르기”에는 모순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신다”라고 본 휴겔(von Hugel)이 말했듯이,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역사와 인간의 현재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한다.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끌림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쪽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마음의 느낌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에 나온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42:1). 이것이 곧 깊음이 깊음을 불러내는 것이며 (사슴의 갈급함 같은 깊은 갈등은 인간의 영적 깊은 경험을 불러내는 것-역자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그 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 즉 성경적 진리이며 헛된 율법주의와 자신의 힘으로 구원 받으려는 헛된 노력에서 구제하는 이 복된 교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불쾌한 친구로 분류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받아들여 변화하는 전 과정은 감동이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는 도덕적 삶을 살도록 충격을 주지 않고, 또 부패한 자아(Adamic-ego)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해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하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없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영접한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사실상 그는 약간의 만족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용기를 가지도록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것이다.

현대 과학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님은 한 인격체시며,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음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알려면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속속들이 알게 된다.

사람들 간의 아주 어색한 교제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에 이르기 까지, 인간들 사이의 모든 사회 교류는 인격 대 인격의 반응이다. 참 종교는 피조 된 인격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에 반응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하나님은 인격(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격”-역자주)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의 깊은 본성 안에서 그는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며, 기뻐하시고, 느끼시며,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며 피로워하시는데 모든 다른 인격체가 경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유형의 인격체로 다가오신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신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과 생각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가지는 감격스러운 교제의 핵심이다.

하나님과 구원 받은 영혼 사이의 이러한 교제는 개인적이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개인에게 알려진 후 그 조직된 단체에도 알려지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식의 한계 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예를 든다면, 유아세례가 바로 그렇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인이 어떤 다른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한 본인이 의식할 수 있게끔 자신의 의식 영역 안에서 “알게” 된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죄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작은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한 것 뿐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께 친근감을 느끼며 그것을 인식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게 된다. 이것은 신령한 탄생(heavenly birth)이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신성의 풍성함을 기쁜 마음으로 탐사하는 영광스러운 추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끝날 것인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심오함에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다.

끝 없는 바다이신 주, 누가 주를 소리 내게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자신의 영원성이 주를 돌렸나이다.
 신성의 위엄이여!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계속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경험한 자녀들에게는 옳다고 인정되지만, 너무 “쉽게-믿고-만족”하는 사이비 신앙가들에게는 비웃음이 될 참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영적 자기모순(paradox)인 것이다.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는 이 거룩한 자기모순(paradox)을 어느 예배자나 이해할 수 있도록 4행 시의 찬송 시로 썼다.

오 산 떡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맛보며,
 여전히 당신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원천이신 주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당신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갈망하나이다!

과거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갈망하는 그들의 열정을 금방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애타했고, 그들은 기도하고 씨름 하고 계절이 바뀌도록 밤낮으로 그를 찾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은 그 동안에 애쓴 노고를 덮고도 넘치는 충만한 즐거움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좀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논의하는 식으로 다가갔다. “이제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출33:13-kjv).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담대하게 간구한다.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소서” (18절). 하나님은 이러한 열정의 표현을 정말 기뻐 받으셨고 다음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장엄한 광경으로 그의 모든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게 하셨다.

다윗의 삶은 영적 갈망의 연속이었으며, 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과 찾은 자의 즐거운 비명으로 메아리 친다. 바울은 그의 삶의 주요 동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불타는 열정에 있다고 고백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빌 3:10)고 말한 것은 그 마음의 목표였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빌3:8).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갈망으로 즐거워진다. 찬송 부르는 자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가 이미 발견하였음을 느끼게 된다. 바로 몇 세대 전만해도 신앙의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하늘로 가신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그 분께 나의 모든 소망을 고정시킨다.
 내가 그의 행로를 보고 뒤 따라가리,
 내가 그를 볼 때까지, 그 좁은 길로 . . .

<John Cennick의 찬송시 (1743)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그의 행로를 보고 뒤 따라가리”의 앞과 뒤의 구절들을 첨가했음 - 역자주>

하지만 오늘날 많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그 찬송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 어두움의 세대에서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accepting)” 최초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자면 “accepting”은 성경에도 없는 용어), 그 이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면 더 이상 그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짜 논리의 소용돌이에 우리는 빠져있다. 이것이 당연한 정설(orthodoxy)의 결론인 듯이 우리에게 인식되었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반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참된 예배와 갈망과 찬송은 현저히 무시되었다.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체험적 마음의 신학은 이제 거절 당했고, 어거스틴(Augustine)이나 루더포드(Rutherford)나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같은 사람들이 보아도 분명히 이상하게 여겨질 독선적 성경해석에 의해서 체험적 마음의 신학은 거부 당했다.

이러한 냉 기류 가운데서도 천박한 논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다. 그들은 (장악하고 있는) 그 논리의 지배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곧 눈물로 돌아서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맞보기 원하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만져보기를 원하며, 그들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정말 권한다. 그 갈망이 없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저급한 상태로 내려앉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생기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이 없는 결과이다. 자기만족은 모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 원수이다. 진지한 갈망이 보여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사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를 너무 오래 동안 공허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종교가 복잡해 진 시대에 살고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은 이제 우리 가운데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프로그램들, 방법들, 조직들, 그리고 시간과 주의력을 쏟아 붓게 하는 신경조직 같은 활동세계가 단순성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갈망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 알팍한 우리의 내적 경험, 무의미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세상이 사용하는 판촉용 방법들을 굴욕적으로 모방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게 하는 증거물 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적 표현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지혜로운 자나 총명한 사람들로부터는 깊이 숨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려 할 때 단순화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 벗어 버려야만 한다 (그러면 그 복된 중요한 것들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버리고 어린 아이같이 꾸밈없는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행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것이다.

만일 종교가 결론적으로 말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 말고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약간 더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거기에 더하여 (God-and)” (하나님과 그 외의 것을 함께 추구하는 것-역주) 라는 악한 습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는다. “거기에 더하여 (and)” 안에는 우리를 심히 비통하게 하는 것이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더하여 (and)”를 삭제해 버린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은밀하게 열망해왔던 우리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거나 활성화 된 마음의 활동이 위축될까 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할 수 있고, 그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그 유일하신 분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색다른 영국 고전인, “알 수 없는 구름(The Cloud of Unknowing)”(저자 미상의 14세기 고전-역주) 의 저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사랑의 은유함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를 싫어하라. 그리하여 당신의 이해력이나 의지가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자체만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일이다.”

또 한편, 그 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벗어버리되, 심지어 우리의 신학까지도 벗어버리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하

나님 자체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동기를 두지 않고 꾸밈없는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생각의 저변에는 신약진리의 넓은 기초가 깔려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자체 (Himself)”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을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단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단순성을 강조한다. “만일 당신의 종교를 한 마디로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하고 싶다면, 보다 나은 표현을 취해야 할 것인데, 한 음절의 짧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음절보다 한 음절이 더 간단하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간단한 단어를 말하자면 ‘하나님(GOD)’ 또는 ‘사랑(LOVE)’ 같은 단어이다.”

주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실 때,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레위에게 간단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18:20)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레위가 모든 다른 형제보다도 부유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왕이나 귀족들 보다도 더 부유한 부자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원리는 지극히 고귀하신 하나님의 성직자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는 일반적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가 소유하도록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는 것이 너무 어색하므로 결코 그것들이 그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의 재물들이 하나 하나 없어져 가도 그는 상실감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모든 만족과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하나님 안에서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없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다-역자주).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순수하게, 정당하게,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

오 하나님, 저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이 저를 만족케 하면서도 더 갈망하게 합니다.

더 나은 은혜가 제게 필요함을 안타깝게 의식합니다. 저의 열정이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는 주를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갈망에 갈망을 거듭합니다. 기도하오니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주를 진실로 알게 하소서. 주의 공훈로서 제 속에 사랑의 새 일을 시작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2:10)라고 제 영혼에 말씀하소서.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였던 이 혼미한 낮은 땅에서 은혜로 일으키시사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마음을 비운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구상에 만드시기 전에 그는 먼저 인간의 생존과 기쁨을 위하여 유용하고 즐거운 것들을 세상에 미리 창조하여 준비하셨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그 모든 피조 된 것들을 가리켜 단순히 “것들(things)”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창1:31, 이하 “세상의 것들”로 번역함 -역자주)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언제나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단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 뿐이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실 가치가 있는 영역이 있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수천가지의 선물(세상의 것들)과 관계 없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나 죄가 혼란을 끌어들이고, 그 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조차도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되게 하였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쫓김을 당하신 때부터 우리의 비참함은 시작되었고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things)”이 대신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왕으로 계셔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반면에 도덕적으로 어두워진 마음 속에는 완고하고 공격적인 강탈자들이 서로 왕위를 먼저 차지하려고 싸울 뿐이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제적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타락한 삶의 섬유질 같은 질긴 뿌리가 있는데 그 본성은 언제나 소유하고 또 소유하려고 한다. 그것은 깊고도 사나운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탐낸다. “나의 (my)”와 “나의 것(mine)”이라는 단어는 인쇄해 놓고 보면 해롭지 않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계속 널리 쓰여질 때는 의미심장하다. 그 단어들은 수천 권의 신학서적이 설명할 수 있는 것 보다도 더 옛 아담의 실제 본성을 나타낸다. 그 단어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질병의 증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뿌리들은 “세상의 것들”에 내려져 있고, 우리는 죽지나 않을까 염려 되어서 그 뿌리의 작은 한 가닥도 뽑아내려 하지 않는다. 본래 개발되도록 결코 시도되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괴물 같은 대리자에 의해서 자연의 모든 행로가 망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들(things)”의 포학(tyranny)과 관련하여 언급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9:23-24) 라고 하셨다.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하여 관대히 목인해 주어야 하는 원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목숨(life)”과 “자기(self)”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삶 (self-life)”이다. 자기 삶의 중요한 특성은 소유욕인데 “쟁취하다(gain)”와 “이익을 보다(profit)”라는 단어들이 그 소유욕을 암시하고 있다. 이 원수를 생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원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는 것이며,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원수를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파괴하는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이르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고독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뿌리 박혀 있는 소유욕을 뽑아버린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poor in spirit)”** (마5:3)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목격되던 일반 거지같은 상태와 비슷하게 그들의 내면에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난 (poor)” 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의 실제 의미이다. 이 복된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things)” 이라고 하는 포학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멍에를 꺾어버렸는데 그것은 싸워서 이룬 것이 아니라 포기 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비록 모든 소유감각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5:3)

이 문제를 당신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권하고 싶다. 이 문제를 단순한 성경적 교훈으로 이해하고 다른 비활성적인 교리들과 함께 마음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 길의 표시이며, 그 길은 가파른 하나님의 산 비탈을 깎

아서 만든 좁은 길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추구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고(좁고 험한 길이라고 피하며-역자주) 감히 다른 길(넓고 편한 길)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자국씩(좁고 험한 길로) 기어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거절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흔히 볼 수 있듯이 신약에 나타난 이 진실한 영적 삶의 원리가 구약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포기한 삶의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최고의 복을 최초로 받게 된 내용을 훌륭하게 해설한 것이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이삭에게는 할아버지 뻘이었고, 갓 태어난 그 아이는 곧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마음의 우상이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서투르게 그 어린 것을 들어 품에 안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열정으로 자식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사랑의 강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하려고 행동을 취하셨다. 그 자식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모든 신성한 것들,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 수년간의 소망들, 그리고 오래 기다려지는 메시아 꿈같은 신성한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었다. 그 아들이 갓난 아이에서 점점 소년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침내 위험수위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이 더 가까이 가까이 밀착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결한 사랑의 오만함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건져내시려고 개입하셨다.

“곧 네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burnt-offering)로 드리라”** (창22:2).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저자는 그날 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년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근처의 비탈에서 가졌던 고민과 고통을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나, 경의를 표하는 심정으로 상상하면 별빛 아래서 혼자 웅크리고 엎드려 떨면서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보다도 더 큰 고민과 고통으로 겻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실 때까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러한 치명적 고통이 인간의 영혼에게 주어진 적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 목숨이 거두어지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수 천번이라도 더 나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늙었고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였던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 그리 혹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렇게 (이삭 대신) 죽는 것이 살아서 대를 잇는 건강한 아들에게 자신이 아득하게 바라보던 비전을 넘겨주는 마지막 기쁨이 될 것이며, 오래 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소년을 죽일 수 있겠는가! 비록 상처 받고 저항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것을 용납한다 할지라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창21:12) 라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삭을 죽이는 행위와 조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불 같은 시험이었다 (벧전4:12). 그러나 그는 그 불의 도가니에서 실패하지 않았다. 별들이 아직 이삭이 잠들어있는 텐트에 조명을 비추듯 밝게 비추고 어두운 동녘이 밝아오기 전, 이 연로한 성도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바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깊은 밤 언젠가 가슴 아픈 그의 마음이 얻은 해답이었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해 헤매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감지했다는 것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그 해답은 신약성경과 잘 조화를 이룬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나이 많고 인내하는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소년에게 손을 대려는 아브라함을 정지시켰다. 하나님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만하면 됐다 아브라함아! 나는 결코 네가 그 소년을 살해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네 마음의 성전에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내가 온전히 네 마음을 통치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네가 사랑을 남용하는 것을 고쳐주기 원했다. 자 이제 착실하고 건강한 네 소년을 도로 가지라. 그를 데리고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fear God)을 아노리”** (참고: 창22:1-14).

그 다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22:16-18).

나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견고하고 깨끗하고 광활한 그 산 위에 일어섰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 대우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친구요 마음에 드는 자로 구별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사람이고,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며, 무소유의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역자주).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집중시켜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중한 것(아들)을 그에게서 가져가

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삶의 주변에서 시작하여 그 마음 속 중심으로 접근하며 일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하나님은 예리한 한 행동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급히 가르시고 들어가 그의 마음을 분리하기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방법과 시간을 절약하셨다. 가혹하도록 아팠으나 효과적이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무소유자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여전히 그가 즐길 수 있는 그의 소유로 남아있다. 양과 낙타와 가축의 떼들과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이삭이 안전하게 그의 곁에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무소유자이다. 거기에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포기”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신선한 마음의 신학이다. 조직신학에 관한 책들은 이것을 빠뜨리고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해할 것이다.

혹독하면서도 복된 그 경험 후에 아브라함은 “나의(my)”, “나의 것(mine)”이라는 단어를 그전과 똑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유”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느낌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things)”에 대한 미련을 영원히 쫓아버렸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이 되었다. 그의 마음 속 중심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세상은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연로한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의 진정한 재산은 내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는 소유의식은 가장 해로운 습성 중에 하나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욕의 사악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는 비극적이기 때문이다.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안전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재물을 양보하지 못한다. 특별히 우리의 재물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처럼 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은 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그에게 위임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지만, 위임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받은 재능도 주님께로 돌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 재능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라고 인식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당신이 특별한 재능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눈이나 건강한 근육 이상으로 그 재능들을 자랑할 권리가 없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전4:7)

어느 정도 자신을 알만큼 살아온 크리스찬이라면 이 소유병의 증상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자신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그 마음 속에 강해지면,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자,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는 먼저 모든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자신에게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방비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은 자신의 거짓된 마음의 교활한 속임수를 마구 짓밟고, 주님과 솔직하고 막힌 것이 없는 교제를 강하게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이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을 부주의 하고 무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받으실 만한 확실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에서 그 “세상의 것들”을 꺼내 버리신 후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지배하고 계심을 주장하라. 하나님이 그 “세상의 것들”을 꺼내실 때 당신은 구체적으로 사물들과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과감하게 것처럼 결단을 내린다면, 당신은 순례의 길이 몇 년 걸릴 것을 몇 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약하고 주저하며 천천히 걷는 형제들보다는 훨씬 일찍 약속의 좋은 땅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역자주)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어떤 사람들이 자연과학의 사실들을 배우듯이 기계적 암기로 익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진리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험 후에 오는 복을 알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모질고 쓰라린 경험을 우리 마음에 통과 시키는 삶이 있어야 한다. 옛 저주(아담부터 내려오는 부패성-역자주)는 고통 없이 나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속의 강인한 옛 구두쇠는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며 쓰러져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뜯겨져 나가야 한다. 그것은 턱에서 치아를 뽑아냈을 때처럼 고통 중에 뽑히고 피를 흘려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 영혼에서 강제로 쫓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뽑히는 소유욕이 애걸하며 불쌍하게 구걸할지라도 마음을 모질게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애타게 구걸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가장 쾌ಷ한 죄들 중에 하나인, 자기동정(self-pity)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채야 한다. 참으로 점점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기)포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조만간 그 테스트를 시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그 당시 그에게 시험이라고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 했더라면, 구약 전체 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시험대 앞에 불려질 것인데 우리는 언제 거기에 서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한다. 그 시험의 장소에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옳은 것 한 가지와 옳지 않은 다른 것이다. 우리의 전체 미래는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

아버지여, 주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저의 겁 많은 마음은 그것의 장난감들 버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내적 피흘림이 없이는 그것들과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공포가 제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떨면서 나아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오랜 동안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과 제 자신의 삶에 부분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뿌리 채 뽑아주소서. 그리하여 대항자가 없는 제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기 바라나이다. 그 다음 **“주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60:13b). 제 마음에 더 이상 태양 빛이 필요 없겠사오니, 그것은 주께서 친히 제 마음의 빛이 되시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휘장을 제거함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19)

교회 교부들의 명언들 가운데 어거스틴의 “주께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쉬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위대한 성인은 몇 마디 안에 인류의 시작과 내면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만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설명이다. 만일 잘못된 교육과 미숙한 추리력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한다면,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나의 호소는 하나님의 지혜로 과거에 은밀히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접촉하시고 일깨우시므로 말미암아 갈망하는 마음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설득시키는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다. 오래 전, 새 영국 입문서(The New England Primer—17세기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통치 하기 시작하였을 때 미국 교육을 위하여 최초로 영국에서 출판된 교과서이며 여기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포함되어 있었다-역자주) 에 기재되었던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성직자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채택한 소요리문답은 옛날부터 사용해 오는 용어인 “무엇인가?”와 “왜 그런가?”(What and Why)의 형식으로 질문하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답변을 간단한 문장으로 적었다.

질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동의하여, 24 장로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이니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것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계4:11).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한 인격체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즐겁고 신비로운 사귀므로 우리도 기뻐하도록 조성하셨다. 그는 우리가 그를 보고, 그와 함께 살도록 의도하셨으며, 그의 미소에서 우리의 생명을 끌어내도록 계획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밀톤(Milton)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역을 설명할 때 표현한 “더러운 반역(foul revolt)”의 죄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거나 그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었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했다.

하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왕상8:27)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누가 감히 도망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의 지혜서가 증언하듯이 주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한가? 한 가지 엄숙한 사실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가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의 편재성(omnipresence) 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실재(manifest Presence)를 의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사실에 속한다. 아담은 자신의 의식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실재 앞에서 도망하여 동산의 나무 숲 사이로 숨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의 편재성에 의해서 아담이 숨는 그 장소에 이미 계셨다-역자주), 우리도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였고, 또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눅5:8) 라고 외치면서 뒷걸음질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났다.

그와 같이 지구 상에 있는 인간의 삶은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의 실재에서 멀리 떠난, 즉 우리가 거처하기에 옳고 적합한 “더없이 행복한 곳(blissful center)”에서 인간은 도망쳤다(“blissful center”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가게 될 영원한 처소를 찬송한 필립 다드리지의 찬송시 중에 한 구절, 한국 찬송가에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로 소개 되었는데 5절 중에서 앞의 3절만 번역되었으므로 이 구절은 없다-역자주). 우리의 처음 (예뵈)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전체 사역은 구속 안에서 그 더러운 반역에 의한 비참한 결과를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바르고도 영원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이 만족스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완전히 화목하여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타락하기)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어 그의 실존(the Presence)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 사역(prevenient working)으로 우리가 회복하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 조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끈고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the Presence of God)을 사모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눅15:18)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걸음이며, 중국의 현인인 노자(Lao-tze: 老子)가 말한 것처럼 “천리 길의 여행도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는 것과 같다 (老子는 중국의 철학자이며 주전 604-531년 사람이다-역자주).

죄악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즐거운 임재 안에 이르는 영혼의 내적 여행이 구약의 성막 안에 훌륭히 설명되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은 먼저 바깥 뜰에 들어선 후, 놋제단(brazen altar)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그 옆의 물 통에서 자신을 씻었다. 그리고는 휘장(veil)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바깥의 빛이 들어 올 수 없게 만든 곳이다. 반면에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금 촛대가 부드러운 빛을 온 방안에 두루 비추었다. 거기에는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떡(shewbread)이 상위에 놓여있고,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the altar of incense)이 있었다.

비록 예배자가 그 과정들을 거치며 만족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실재(the Presence of God)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 다른 휘장이 지성소(the holy of holies)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안의 속죄소(the mercy seat)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두렵고도 영화로운 나타남(manifestation)을 통하여 실재하셨다. 그 성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만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단에 바친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휘장은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영혼을 포기하셨을 때 찢어진 바로 그 성전 휘장이었다. 성경 기록자는 휘장이 그렇게 갈라진 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실재(the divine Presence) 안에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히10:19-20).

신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구약의 모형과 조화를 이룬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자의식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간직해야 할 어떤 교리 이상의 것이며, 매일 순간마다 즐겨야 하는 삶이다.

임재의 불길 (성막 위에 나타나는 불, 출40:38-역자주)은 레위족속이 규례대로 행하는데 있어서 마음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막에 정해진 규례들은 알 수 없는 언어의 문자와 같았다. 그러면 레위기의 규례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나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성막의 가장 위대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이다. 성막의 휘장 안에 그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 실재의 중심이다.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에는 속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느끼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 뿐이며,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기독교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신분으로만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맥세인(McCheyne : 스코틀랜드의 열정적 설교가-역자주) 같은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불 같은 (성령의) 충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자신들을 측정한다. 그들은 불타는 열정이 차지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비천한 만족을 채우고 있다. 우리는 법적 소유(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신분-역자주) 안에서 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적 체험이 없는 것에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휘장 안에서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만물이 있기 전 아버지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빛의 빛이며,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낳음을 입은, 아버지와 일체이신 분” 이고, 또 “성령, 생명의 주요, 베푸시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 사이에 혼란도 없고 본질도 분리되지 않은 삼위 일체의 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개별적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Godhead)은 모두 동일하고, 그 영광이 동등하며, 그 위엄이 함께 영원하기 때문이다. 옛 신경들(creeds)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으며, 영감 된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휘장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세상은 이상한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나, 성육신을 통하여 완전히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는 지금

심령이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황홀케 하는 충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려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 우리의 종교적 질병들이 즉시 치료 받으려면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영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것이다. 그런 체험은 우리를 처량한 굶주림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풍만하게 할 것이다. 덩불 사이에서 일어난 불이 벌레들과 균들을 태워 없애버리듯이 그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불결한 것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신 그 분은 얼마나 걸어 다니기에 광대한 세계이며, 헤엄치기에 얼마나 넓은 바다인가! 그는 “영원”하시므로 시간을 미리 보시며,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다.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분 안에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에 가치를 두지 않으시며 시간으로부터 아무런 변화 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것은 그가 결코 변하신 적이 없으며 조금이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가 변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에서 점점 나빠지시거나, 나쁜 것에서 점점 좋아지실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그 어느 쪽도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보다 더 이상 완벽해 질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좀 덜 완전하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것은 그가 제한 받지 않고 쉬운 한 행동으로 모든 물질과, 모든 영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하시며,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제한과 자격 같은 것들은 그 어느 것이나 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사랑과 긍휼과 의는 그의 것이며, 그의 거룩하심은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으므로 어떤 비유나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불이라는 단어로써 그 거룩의 개념을 어렵듯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긴 광야의 여정에서는 불기둥 가운데 거하셨다. 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서 빛을 발하던 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 라고 불렀다. 그리고 옛 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불꽃으로 오순절에 임하셔서 각 제자들 위에 머무셨다.

스피노자(Spinoza: 18세기 서양철학의 선구자-역자주) 는 하나님의 이지적인 사랑에 대하여 글을 썼다. 거기에 어느 정도 진리는 있으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은 지적이 아니고 영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그를 진실로 알 수 있다.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불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탁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며 그들의 깊고도 진지한 헌신에 기꺼이 찬사를 들린다. 우리가 잠시라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연이어 떠오르면서 상아궁에서 흘러나오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기같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시편45: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역자주).

프레드릭 페이버(Frederick Faber: 영국의 신학자이며 찬송 시들을 썼고, 한국 찬송가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로 알려짐-역자주)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 한 사람이었고, 그 갈급 한 심령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그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 못지않게 전 생애가 불타는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께 향한 그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각 인격(아버지, 아들, 성령)에게 동등하게 퍼지는 사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위 하나님의) 각 인격을 상대로 준비된 특별한 사랑을 느낀 듯 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찬송한다.

단지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생각을 거듭하고,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
그 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엔 없네.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상급이여!
그 상급의 기쁨은 얼마나 클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머물며,
주를 보고 또 보리라!

(그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여 그를 태워버릴 기세였다. 향기롭고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자신 속에 불타고 있어서 그의 사랑은 불에 녹아져 흘러내리는 금같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어떤 설교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디를 돌아보든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이며, 결말이다. 그

는 그의 종들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아름답고, 기쁨이시다. 누구든지 빈곤해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만 하면, 예수님을 그의 재산과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슬픈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과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나,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온정어린 충만한 사랑을 과장해서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의 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것들의 극치를 설명하는 데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 알려고 하거나, 그가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그를 찬송하려고 한다면 영원한 시간이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 중에서) 말하였다. 그리고 페이지는 주님을 향하여 직접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저의 황홀감을 억제할 수 없으며,
주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 같이,
바로 내 영혼 속에 있나이다.

(세 번째로) 페이지의 타오르는 사랑은 성령께도 향하였다. 그는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신성과 완전한 속성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신성과 완전한 속성을 그의 찬송과 기도에서 계속 찬양한다. 그는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 (성령)에게 간절한 열정으로 경배하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머리를 땅에 대었다. 성령님께 드리는 그의 위대한 찬송에서 그의 불타는 헌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오 성령님, 아름답고 경외로운 자시여!
우리 가련한 죄인들을 위한
주의 부드러운 모든 사랑으로
제 마음이 터질 듯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아주 완전한 즐거움이시므로 그분 자신만으로도, 우리의 본성 전체가 깊이 요구하는 신비롭고 깊은 것들을 충족시키시고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하여 지루한 인용문구들을 감히 사용하였다. 페이지가 알았던 그러한 예배 (페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교리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삼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눈이 열려 신성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가졌다. 그들은 언제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본 바를 말하였다. 그들은 서기관이 아니라 선지자였다. 그 이유는 서기관은 그가 읽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선지자는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서기관과 선지자 사이에는 바다처럼 넓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통파 서기관들은 넘친다. 하지만 선지자,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서기관들의 딱딱한 소리는 복음주의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회장을 통과하여 내면의 눈으로 경외로운 하나님을 황홀히 쳐다보았던 성도의 부드러운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회장을) 통과하여 거룩한 임재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민감하고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제거된 회장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지성소 밖에 머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단념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랑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네 얼굴을 좀 보고, 네 음성을 좀 들어보자. 네 목소리는 감미롭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가까이 가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으며,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는 나이 많아져서 성막의 바깥 뜰에서 지쳐있다.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단지 우리가 “냉냉 하기” 때문이라는 보통 대답은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마음이 냉냉한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그 냉냉함 뒤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며 그것이 냉냉함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한 회장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그 회장은 처음 회장이 (찢겨져) 제거된 것처럼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어서 들어오는 빛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 휘장은 우리 속에서 판결 받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으며, 부인되지도 않은 채 우리 속에 살아있는데, 곧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그 휘장이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한 적도 없고, 은밀히 부끄러워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심판대 앞으로 결코 끌고 간 적이 없는 자기 삶(self-life)이라는 촘촘히 짠 휘장이다. 이 불투명한 휘장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며,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 보기만하면 거기에 꿩메고, 헝겊으로 감고, 수선했을지도 모르는 한 원수 같은 휘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로 막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휘장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 있는 이야기 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잠시 어두운 언덕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 받는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지는 않을 줄로 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권 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확신 시킬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을 만난다 해도 그 사실들에 직면할 것이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면 속 휘장을 짠 실들의 이름을 감히 말하겠다.

그것은 자기 삶(self-life)의 섬세한 실들로 짜여진 것인데, 인간 영혼의 상류급에 속하는 죄들이다. 그 죄들은 우리의 행위를 말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죄들이다. 그리고 그 죄들 안에는 그것들의 미묘함과 능력이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아의 죄들은, 자기 의, 자기 동정, 자신감, 자부심, 자기 칭찬, 자기 사랑 등 그와 비슷한 수 많은 것들이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자리잡았고 너무나 많이 우리 본성의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것들 위에 집중 조명하기 전에는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그 죄들의 총체적 표현인, 자기중심주의, 자기과시, 자기 선전의 죄들은 이상하게도 나무랄 데 없는 정통주의 계통의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묵인하고 있다. 그러한 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도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한다.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그러한 것들(자기과시, 자기선전 등을 부추기는 것-역자주)이 인기를 끄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냉소적 관찰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가장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공공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어떤 이는 인간 타락의 교리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에 이른다는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자아가 바로 그 희생제단에서 징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아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만 그가 보는 것에 의하여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자아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싸울 수 있으며, 은혜로 구원 받는 신조를 웅변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그 노력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사실을 모두 말하자면, 자아는 실제로 정통을 먹고 사는 것 같고, 여관에 있기 보다는 성경 수양회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해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갈망하는 우리의 바로 그 상태는 변창하고 자랄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자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앞에 가로막아 숨기는 불투명한 휘장이다. 그것은 오직 영적 체험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 단순한 교훈만으로는 결코 제거될 수 없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체조직에서 문둥병을 교훈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치명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초청해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아의 죄들이 심판 받도록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만 한다. 우리는 우리 구주(Saviour)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비슷한 호된 시련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 시켜야 한다.

다음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가 휘장을 찢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시적인데, 시적이라고 해서 유쾌한 듯 하나 실제로는 그 일과 관련하여 유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경험으로 말하면 그 휘장은 살아있는 영적 직물로 짜여졌다. 그 직물은 우리 온 존재를 구성하고 모든 부분을 움직이는 감각력으로 짜여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 직물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며, 우리로 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십자가가 아닌 것으로, 죽음을 죽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민감한 본체를 찢을 때 그 고통은 어디에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께 준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와 같이 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 하게 한다.

우리 자신 스스로 휘장을 찢으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 생명을 서투르게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셔야만 한다. 우리 쪽에서는 굴복하고 신뢰할 것 뿐이다. 우리는 자기 삶을 고백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 다음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와 우리가 어설픔게 “수락(acceptance)”하는 것과는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료되기를 끝까지 고집해야 한다(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을 때까지-역자주). 우리는 자아가 못 박혔다는 순수한 교리로 만족하고 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사울왕을 모방하여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따로 남겨놓는 것과 같다.

그 사역이 아주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장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거칠고 치명적이지만 효과가 있다. 십자가는 그 희생자를 영원히 매달아두지 않는다. 그 사역이 끝나는 순간이 오면 고통 당하는 그 희생자는 죽는다. 그 후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따르고 그 다음 휘장이 제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영적 체험으로 오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사라진다.

주님, 주의 방법은 얼마나 훌륭하고, 인간의 방법은 얼마나 교활하고 어두운지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보여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주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기-삶이라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 영광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여기 이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하나님을 아는 것

“...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8)

인도의 캐논 홈즈(Canon Holmes)는 25년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특성은 추측이라고 환기시킨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재가 아닌 어떤 추측이다.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증언들에서 나온 추측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믿는다”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스스로 고심해 본적이 결코 없으며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왔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들의 전체 신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와 함께 마음 한 구석에 묻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상적 존재이거나, 아니면 선이나 아름다움이나 진실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며, 하나님은 법이거나 생명이거나 또는 존재현상 배후에 있는 창조적 추진력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많고 다양하지만,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가능성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찾아온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만 우리가 사물과 사람들을 아는 그런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 보다 확실히 앞섰다. 그들의 신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고 요구하며,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침 받았다. 신조에 하나님의 인격과 아버지 되심을 기록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준다. 이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은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실재가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어떤 관념(an ideal)을 사랑하고 어떤 원리에 불과한 것에 충성하려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 모든 애매모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분명한 성경적 교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한 사랑의 인격이 성경을 지배하시는데, 동산의 나무 사이를 거니시며, 동산의 각 장면마다 향내를 불어넣으시듯이 성경을 지배하신다. 살아계신 한 인격이 언제나 존재하시고, 말씀하시며, 변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백성이 그의 나타나심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감수성을 가질 때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성경은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아는 것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명확한 사실로 여긴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사용하였다.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시45: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10:27).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5:8). 이 구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 단지 네 구절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증하는 성경구절 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근본 목적이 그 구절을 믿게 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오감을 가지고 만물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편으로 감각기능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을 용도에 맞게 발휘하여 물질 세계를 파악한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영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성령의 소욕(urge)에 순종하고 그 영적 기능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마음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기능은 그의 본성 안에 잠들어 있어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죽어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덮친 뇌졸중(the stroke)이다. 하지만 그들은 중생할 때 성령의 수술로 다시 활기 있는 삶으로 소생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ransomed) 바로 그 자녀들, 그들은 어째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과의 교체, 즉 습관적으로 자의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 교체를 그렇게도 조금 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만성적인 불

신이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믿음에 결합이 있으면 그 결과로 내적 감수성이 부족하게 되고 영적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 진다. 이것이 오늘날 수 많은 크리스찬들의 상태이다. 이 말을 입증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크리스찬과 대화해 보거나, 처음 발견하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다 얻을 수 있다.

영적 세계는 모두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를 에워 싸며, 우리를 품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의 임재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세계에 지금 계신다. 이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그 나라의 “실재”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는 바로 지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다. 만일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두 단어들은 “믿다(reckon)”와 “실재(reality)”이다. 내가 말한 “실재”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개입하지 않는 실존을 의미하며, 어느 곳에서나 생각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존재하는 실존을 의미한다. 실재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존재가 있다. 그 정당성은 관찰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실재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개념을 비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지성 외에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끝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우주 안에 우리의 측정 기준이 되는 고정된 지점이 없다고 말하기 좋아하는 상대주의자들(the relativists)이다. 그들은 오만한 지식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는다. 그리고 비난하는 말로 우리에게 “절대주의자(absolutist)”라는 용어를 붙이며 스스로 만족해 한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당장 미소를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절대자 한 분,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절대자 한 분이 인간이 사용하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며, 또 언어의 최종적 의미(하나님께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는 아무것에도 “고정” 또는 “실재”라는 말을 쓸 수 없으나(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실재와 고정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음. Ref. 사40:17, 단4:35 -역자주), 우리는 인간의 삶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고정”과 “실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도록 허락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정신 병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 또한 그 불행한 사람들(이상주의자, 상대주의자들)은 실재(reality)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계속 유지한다. 그들은 사물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역지로)조화시키면서 살기를 고집한다. 그들은 정직한데 그 정직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한다.

그 이상주의자들과 상대주의자들은 정신병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론적으로 거부하는 바로 그 실재의 개념들을 따라 살고 있으므로 존재하며, 그들이 없다고 증명하는 바로 그 고정된 점점들을 가지고 숫자 계산하고 살므로 그들이 정신병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따라 기꺼이 살려고 했다면, 그 개념들 때문에 더욱 존경 받았을 것이다(자신들의 이론에 충실하기 때문에-역자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그들의 관념은 두뇌 깊이 자리잡았고, 생활 깊이에는 없다. 생활에서 어디에 접촉하든지 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이론을 부인하고(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고-역자주), (본인 들 답지 않게) 딴 사람처럼 살고 있다.

크리스찬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그는 전시할 목적으로 단순히 거미줄 치듯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가 믿는 모든 것들은 실천적이다. 그것들은 톱니바퀴 들처럼 그의 삶 속에 맞물려 있다. 그 믿는 것들에 의하여 그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향하여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돌아선다.

진실하고 평범한 사람은 세상이 실재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잠에서 깨어 의식을 가질 때 그 실재를 알며, 그는 그 실재가 생각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실재는 이미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이 세상의 실재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자기에게 작별인사 하게 될 것을 안다. 인생이 가진 은밀한 분별에 의해서 그는 의심하는 수천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는 이 땅 위에 서서 얼굴로 바람과 비를 느끼고 있으며, 그것들이 실재임을 안다.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별들을 본다. 그는 검은 천둥번개 구름에서 나오는 고압의 번개를 본다. 그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기쁨과 고통의 외침을 듣는다. 그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실재이다. 그는 시원한 땅 위에 누워 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착각일까 염려 하거나 또는 자는 동안 숨이 멈출까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견고한 땅은 자기 밑에 있을 것이고, 푸른 하늘이 자기 위에 있을 것이며, 지난 밤 자신이 눈을 감을 때처럼 자신 주위에 바위와 나무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는 실재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며 즐긴다.

그는 오감(five senses)으로 이 실재의 세계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기능들을 가지고 그는 그의 육체적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지한다.

이제 우리의 설명대로, 하나님 역시 실재하신다. 그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절대(the absolute)와 최종 판단(final sense)에서 실재이다. 모든 다른 실재는 하나님의 실재를 조건으로 하는 실재이다. 위대한 실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보다 저 차원적이고 예측된 실재로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개념에서도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계신 객관적 실재자 이시다. 경배하는 마음은 그 경배의 대상을 지어내지 않는다. 그 경배하는 마음은 도덕적 잠에서 깨어나는 중생의 아침에 바로 거기서 그 분을 발견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다른 언어는 “그렇다고 여기다(reckon)”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마음에 생생하게 그린다거나 상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상은 믿음이 아니다. 상상과 믿음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예리하게 대립된다. 상상은 실재하지 않는 영상을 마음에 투영하고 그것에 실재성을 첨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믿음은 아무것도 지어내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는 실재적 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익숙한 세계의 실재를 그렇다고 여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실재를 확신 있게 그렇다고 여길 수 있다. 영적 일들이 거기서 (차라리 여기서라고 말해야 좋겠다) 우리의 주의를 끌며, 우리가 신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나쁜 생각의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의 실재는 의심한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실재 하는지 의심한다.

감각의 세계는 평생 동안 밤낮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소란스러우며, 주의를 끌고, 자기를 선전한다. 그 감각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오감(five senses)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실재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의 렌즈를 너무 흐리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실재인,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이 우리 주위에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없게 한다. 감각의 세계가 승리하여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수가 되고,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의 원수가 된다. 그것은 아담의 비참한 후손들 각 사람에게 타고난 저주이다.

크리스찬 삶의 기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크리스찬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실재이다. 무분별한 마음과 시야를 꼭 채우는 사물에 영향을 받은, 수정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것과 실재하는 것 사이를 뚜렷이 대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조는 다른 곳에 있는데, 실재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있다. 반대로, 영적인 것과 실재하는 것 사이에는 절대로 대조라는 것이 없다. 영적인 것은 실재(real)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일어나서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는 빛과 능력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악한 습성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실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이 말씀은 신앙 생활의 기초이다. 그 기초에서 우리는 저 높은 곳(the unlimited height)을 향하여 오를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시면서 **“또 나를 믿으라”** (요14:1) 라고 말씀하셨다. 앞 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세(other-worldly)의 존재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내세(다른 세상)라는 말이 이 세상의 아들들에 의하여 비웃음을 샀고, 비난의 상징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 온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비웃어도 상관없다. 각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심의 영역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면,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일 우리가 그 선택을 놓쳐버리면, 우리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고, 우리가 획득한다 해도 그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역자주). 이 세상에서 경멸의 대상이며 술주정뱅이가 조롱하는 노래의 주제가 되는 “내세(other-worldly)”는 우리가 주의 깊게 선택한 목적지이며 우리의 가장 거룩한 열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다른 세상)”를 미래의 것으로 몰아 넣는 일반적인 잘못을 피해야만 한다.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그것은 우리의 친숙한 물질세계와 병행하며, 두 세상(이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의 문은 열려져 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말한다(그 시제는 분명히 현재이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12: 22-24). 이 모든 것은 “**만질만한 . . . 산**”(히12:8) 과 들을 수 있는 “**말하는 소리와 나팔 소리**”(히12:19) 와 대조를 이룬다. 시온산의 실재가 감각으로 감지되어지는 것처럼, 시온산의 실재가 영혼에 의해서도 파악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없겠는가? 이것은 상상의 어떤 속임수가 아니고, 명백한 현실의 실재이다. 영혼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나약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지실 때 곧 생기를 얻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며,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영혼에 관한 사실들이 우리의 내면의 눈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요14:21-23). 그 내적 계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민감한 감지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새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 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맞보고, 들으며, 내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요1:9) 빛의 변함없는 광채가 보여질 것이다. 점점 우리의 기능들이 예민하게 되고 확실해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전부가 되시고, 그의 임재는 우리 삶의 영광과 놀라움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모든 능력에 생명력을 더하셔서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민감한 감지력을 제게 주시며, 제가 주의 선하심을 맞보아 알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더욱 실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5. 우주적으로 임재하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7)

모든 기독교의 교훈 가운데는 어떤 정해진 기초 진리들이 있다. 때때로 그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고, 주장되기 보다는 추측되어진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 안에 원색들(primary colors)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원색들이 완성된 그림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그 기초 진리들은 모든 진리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한 기초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충만이 실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안에 거하시는데 그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떠나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다.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것을 대담하게 가르쳤고 기독교 신학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성은 성경책 안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은 일반적 크리스찬의 마음에 배도록 마음 깊이 자리잡지는 않았다. 기독교 교사들은 그것에 충실히 관여하기가 부끄러워서 회피하며, 혹시 설명한다 할지라도 소리를 낮추어 죽여서, 하여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같이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범신론이라고 비난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의 교리(하나님이 어디에나 충만이 거하신다는 교리)는 절대로 범신론이 아니다.

범신론의 잘못은 너무 뚜렷하므로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모든 피조 된 사물들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범신론이다. 자연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무 잎사귀 하나를 만지든지, 또는 돌을 만지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거룩한 신성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만물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여 세상에서 모든 신성을 완전히 추방하려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이 영원히 감지할 수 없는 큰 간격으로 분리되어 계신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사물들을 하나님과 거의 일치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 보다 앞서시며 그것들에서부터 독립하여 계신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계 안에 어디에나 계신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직접 경험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며, 계실 수 밖에 없다. 천만의 천사들이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간격으로 우주 공간에 널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각자는 동일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다. 어떤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운 만큼, 다른 장소에서도 똑 같이 하나님께 가깝다(거리 개념이 전혀 없다-역자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는 진리이다.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의 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1:1)

(“태초에”)는 물질(matter)이 없었다. 왜냐하면 물질은 스스로 발생원인(self-causing)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에는 발생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원인이다.

(“태초에”)는 법(law)이 없었다. 왜냐하면 법(예를 들면 자연법칙 같은 것-역자주)은 모든 피조물이 따르는 진로를 위한 이름 뿐이기 때문이다. 그 진로는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태초에”)는 지성(mind)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성은 피조 된 것으로서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즉 “물질과 지성과 법의 근원이며, 스스로 계시는(the uncaused cause) 하나님이” 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미친 듯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하여 숨으려고 시도한 것이

다. 다윗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139:7)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하려는 터무니 없는 생각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 그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인 이 시편을 계속 이어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8-10).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보심”이 동일함을 알았으며, 그 “보시는 임재(the seeing Presence)”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출생하기 전부터 아직 전개되지 않은 그의 인생의 신비를 보시면서 다윗과 함께 계셨음을 알았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감탄하며 외쳤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왕상8:27).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 . .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 . .” (행17:27-28) 라고 확실하게 증언 했다.

만일 하나님이 우주의 어느 곳에나 임재 하시고, 그가 안계신 곳에 갈수도 없으며, 또 그가 안 계신 곳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면, 그 임재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사실이 아닌가? 족장 야곱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신32:10 kjv) 그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놀라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28:16). 야곱은 모든 곳에 충만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all-pervading Presence)의 영역 안에서 일 순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나타남은 같지 않다. 그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의 임재를 의식할 그 때에만 분명해진다. 우리 쪽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 항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성령님께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그 나타내심은 이름 뿐인 크리스찬 생활과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환하게 밝아진 생활 사이의 다른 점을 보여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항상 그는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신다. 그는 각 사람에게 그가 계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인가도 보이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내시려고 설득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반포하시라” (출34:5).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본성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으므로 모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나게 되었다.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즉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은 우리 중 누군가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내시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한다. 누구에게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잠깐 중요한 방문을 하시려고 시간에 맞추어 먼 거리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혼에게 접근 하시는 것이나, 영혼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공간적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의 개념에는 물리적 거리의 개념이 없다. 그것은 거리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또는 멀리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아들이 자라가면서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가 태어난 때부터 아버지 곁에 살았고 결코 하루라도 또는 그의 생애 중 집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는 “경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 소년이 아버지를 좀 더 친밀하게, 깊이 이해하려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생각과 감정의 장벽은 무너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고방식과 마음에서 서로 점점 가까이 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복 되신 주여”라고 말할 때 (Frances Crosby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송시의 후렴인 데 한글 찬송가에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소개 됨-역자주), 우리는 장소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정도가 높아지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완전하게 의식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떠나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공간 저쪽으로 결코 소리지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영혼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보다도 더 가깝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못한 희미한 크리스찬 경험을 따라서 그러저럭 지내게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인기후보를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중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른 자녀들 모두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삶과 간증들이 널리 알려진 위대한 성도들 중에서 20명을 무작위로 뽑아보라. 그들이 성경의 인물이거나 성경시대(성경이 기록 되던 시대-역자주) 이후에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거나 상관 없다. 당신은 그들이 서로 같지 않다는 사실을 곧 발견할 것이다. 때로는 그 다른 점이 너무 커서 정말 눈이 휘둥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모세와 이사야는 얼마나 다르며, 엘리야와 다윗이 얼마나 다르고, 요한과 바울, 성 프란시스와 루터, 피니와 토마스 켐피스가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는 인생 자체만큼이나 광범위한데, 즉 인종과 국적과 교육수준과 기질과 습관과 개인 자질들이 다른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 시대에서 보통 방법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영적 삶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도 대수롭지 않음에 틀림없다. 어떤 중대한 자질면에서는 그들이 서로 닮았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자질은 영적 수용성이었다고 나는 감히 말하겠다. 그들 속에는 그 무엇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재촉하였다. 나는 깊은 분석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고도 그들이 영적 의식을 가졌다고 간단히 말하겠는데, 그들은 그 영적 의식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일로 여겨지기 까지 그것을 계속 계발하였다. 그들이 내적으로 갈망을 느꼈을 때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하였다는 면에서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은 영적 반응의 습관을 평생 동안 몸에 익혔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heavenly vision)에 순종하였다. 다윗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였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27:8). 인생의 모든 선택의 배경이 그렇듯이 이 수용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으며, 그것을 신학적으로 강조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느낄 수 있는 주권이다. 경건한 마이클 앵글로(Michael Angelo: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사람으로써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공학자, 시인이며,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역자주)는 짤막한 시(sonnet)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도움 없는 내 마음은 메마른 흙,
그 타고난 자아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먹일 수 없으리.
오직 주님께서 명하실 때 비로서 짝이 트는,
선과 경건한 열매의 그 씨는 주님이시나이다.
주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꼭 인도하소서.

이 글은 한 위대한 크리스찬의 심오하고 진지한 간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려는) 연구에 대답해 줄 것이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 되는 것에도 경고하려고 한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없는 소극적 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주권의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진리들을 다루는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가장 깊은 경외심으로,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렘15:15)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진리들은 하나님의 전지(무한한 지혜)에 속하는 것인데, 깊고도 신비스러운 대양과 같다. 역지로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려는 것은 신학자를 만들어낼지는 모르나 결코 성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수용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합적인 것으로서 영혼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즉, 수용성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며, 무엇에 가까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고, 무엇에 공감을 나타내는 반응이며,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수용성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 적거나 많거나 보다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것은 훈련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으나 게을리 하면 없어질 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주권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주어진 선물의 목적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그 선물의 가치가 인정되고 계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현대 복음주의가 매우 심각한 붕괴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다. 옛 성도들에게 것처럼 귀중하였던, 계발과 훈련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전반적인 종교적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졸렬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는 황홀하게 만들고 빠르게 진행되는 극적인 활동(dramatic action)을 요구한다. 단추 누르기와 자동

화 기계들 가운데서 자라난 크리스찬 세대는 그들의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 좀 느리거나 덜 직접적이면 참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계화 세대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 한 장을 읽고, 찢막하게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 다른 복음 집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최근 먼데서 돌아온 종교 모험가의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내적 깊은 파산(bankruptcy) 위기를 메우려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급히 밖으로 나간다.

이런 정신적 비참한 결과들은 모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인데, 즉 천박한 삶, 속이 빈 종교 철학들, 흥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 집회들, 사람들 칭찬, 종교 형식주의를 신뢰, 사이비 종교 비슷한(quasi) 종교적 교제들, 세일즈 맨 방식들, 개성적 인물의 활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과 이와 비슷한 것들이 사악한 질병의 증세이며, 영혼의 깊고도 심각한 만성 질병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질병은 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크리스찬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통탄할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거나, 너무 소심하여서 정정 당당히 말하지 못하거나, 너무 자만에 빠져서 남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만족히 여기는 초라한 것들 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열망하지 않았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서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을 본 닦으며, 서로의 경험을 각자의 모델로 삼았다. 한 세대 동안 그 추세는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갔다. 지금 우리는 잡초들이 말라서 타버린 낮은 모래 땅에 도달하였고,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과 같이 여기고 이 낮은 (황량한) 장소를 마치 아주 복된 자들의 초장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이 시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성경적 방법으로 되돌리는 데는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의 크리스찬들은 가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역사는 성 프란시스, 마르틴 루터, 죠지 폭스와 같은 사람들의 지도아래 몇몇 대규모의 회복 운동들이 있었음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루터나 폭스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한 회복운동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적 규모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보통 남자나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영적 수용성의 힘을 계발하도록 힘쓰게 하라. 그러면 그의 빈약하고 무력했던 시절에 바랐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 보다도 더 월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옴으로써 지금까지 자기를 묶어 두었던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성경 자체를 자신의 영적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는 하나의 사실이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진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 그는 생소하거나, 이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수 천년 동안 죄로 물든 인류를 사랑으로 감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신 아버지이시다. 항상 그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와 교제하려고 시도하신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제안에 반응할 때(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 믿음과 사랑과 훈련에 의해서 우리의 수용성이 더 온전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도 점점 자라갈 것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 있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저를 장악해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이 멀어서 주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제 안에, 제 주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말씀하시는 음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보통 지식인이 이 구절을 대하게 될 때, 요한이 가르치고자 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 라고 결론 지을 것이다.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 말이란 생각들이 표현되는 매개체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이라는 말을 적용한 것은 (말씀에 의한) 자기 표현 (self-expression)이 하나님(Godhead)으로부터 유래된 것, 즉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도록 해준다. 성경 전체가 그 개념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고 계신다이다. 하나님은 그의 신적 본성으로 끊임없이 똑똑하게 발음하고 계신다. 그는 세계를 그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채우신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실들 중에 하나는 그의 피조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가장 간단하고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우주론은 이것이다. 즉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우주가) 이루어졌다” 이다. 자연법칙이 가능한 이유는 피조세계 어디에나 충만이 거하시니(immanent) 하나님의 살아 활동하는 음성(the living voice)에 있다. 그렇지만, 모든 세계를 존재케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구조 안에 전달된 말씀은 전혀 기록되거나 인쇄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는 잠재력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기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힘, 참으로 자연계에서 유일한 힘인데, 그 이유는 오직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 됨으로 모든 에너지가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기록되기 때문에 잉크와 종이와 가죽의 필요로 제한 받고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으며, 주권적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 하다. “. . .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6:63). 일러주시는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현존하는 음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능력은 닫혀진 책 안에서 잠든 채 간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에서 목수처럼 몸소 다듬으시고 맞추시고 조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상상한다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낮아지고 유치해진다. 성경은 그와 다르게 교훈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 . .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지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시33:6,9).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 . .” (히11:3). 또 한편,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 음성은 세상에 충만한 음성인데, 수 많은 세기를 통하여 성경보다 먼저 있었고, 창조의 시작 이래로 잠잠해진 적이 없으며, 도리어 우주의 아득한 저 멀리까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4:12). 태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하여 말씀하시자 무엇인가 생겨났다. 혼돈이 그 말씀을 듣고 질서가 되었고, 어두움이 그 말씀을 듣고 빛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매 . . . 그대로 되니라.” 짝을 이루는 이 두 구절은, 원인과 결과로서, 창세기의 창조기사 전체에 나오고 있다. “말씀하시매”는 “그대로 되니라”의 원인이 된다. 즉 진행되는 현재 속에 “말씀”의 선포는 “그대로 되니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 진리는 다른 모든 성경 진리의 배경이며, 이 진리가 없이는 아무 계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한 권의 책을 쓰시고, 전달자를 통하여 보내신 후 먼 곳에서 도움 받지 못한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래 지속되도록 자신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그의 말씀으로 된 책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흠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사람이 되게 하였고, 또 그가 입 기운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은 흠으로 돌아간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시90:3, 창3:19)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의 온 지면에 나타나는 인류의 비참한 행진은 그 때 한 번 하신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뜻 깊은 발언, 즉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요1:9) 라는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든지 거기에는 진리가 여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안에 있는 빛으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이 들리며, 거기에서 그 빛과 말씀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서 그의 피조 세계 안에 계시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한은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말한다. 성경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런 이들은(율법이 없는 자들은-역자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2:15),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1:20).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가끔 지혜라고 불렀으며, 온 땅에 어디든지 울려 퍼지며 인간 후손들을 추적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였다. 잠언 8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잠1:1) 그 다음 저자는 지혜를 아름다운 한 여인이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 여인은 사방에서 높은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sons of men)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8:4).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간청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 반응을 보려고 간청하는 것인데, 그녀가 항상 찾았지만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반응이다. 우리의 영원한 복지는 우리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데 달려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귀가 듣지않도록 혼란시켰다. 그것이 비극이다.

이 우주적 음성은 언제나 울려왔고, 그 음성은 가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는데 그들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람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안개처럼 스며드는 이 음성이, 과연 마음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이 될 수 있으며, 역사의 시작 이후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온 불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하기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음성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하는 것은 관찰자가 주목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하여, **“우뢰가 울었다”** (요12:29) 라고 말했다. 그 음성을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설명하는 습성은 바로 현대 과학의 뿌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우주만물 안에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장엄해서 어떤 마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존재한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라고 속삭인다. 땅에 속한 사람은 똑 같이 무릎을 꿇을지라도 그렇게 경배하지는 않는다. 믿는 사람은 사물들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바로 지금 우리는 사실상 세속화된 세대 안에 살고 있다. 우리의 생각 습관들은 과학자들의 생각 습관들이지 예배자의 생각 습관들이 아니다. 우리는 경배하기 보다는 설명하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 우리는 “우뢰가 울었다” 라고 설명하고는 우리의 세상 길로 간다. 하지만 그 음성은 여전히 울려 퍼지며 구석 구석까지 미친다. 세상의 질서와 생명은 그 음성에 달려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완고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즉, 갑자기 밀려오는 고독감이나 광대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과 위압감 따위이다. 또는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즉 우리의 기원이 신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마치 어떤 다른 태양에서 오는 빛이 순식간에 지구 위로 스쳐 지나가듯 우리의 뇌리를 스쳐지나 간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들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반대이고, 우리의 이전 신념과 견해하고는 너무나 다름지도 모른다. 그 의문은 구름처럼 걷혀버리고, 눈과 귀로 우리 자신을(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가졌던 의문들을 거두어야만 했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려 할 때, 적어도 그러한 경험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발생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인류와 교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전제(hypothesis)를 너무 경솔하게 흘려버리지 말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창조주의 음성에 대하여 죄로 잘못된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 자신의 믿음이다 (여기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언짢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상적인 선행을 꿈 꾸었던 도덕적 철학자들, 하나님과 불멸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던 종교 사색가들, 평범한 재료에서 순수하고 오래 지속되는 미를 창조하였던 시인과 예술가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천재였구나”라는 단순한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대체 천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재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가 단지 희미하게 이해하는 목적을 성취할 마음에 사로잡힌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사로잡혀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까? 그 위대한 사람은 그의 수고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반항하여 말하거나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는 구원하는 믿음에,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만일 불멸을 향한 희미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교제를 가져오게 하려면,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나에게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다. 하지만 당신은 믿음이 깊은 크리스찬 이면서도 나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친절한 음성이다. 그 음성을 거절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지 않은 한 아무도 그 음성 듣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피는 인류만 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역시 덮고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20). 우리는 친구처럼 친밀한 천국을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다. 천국이나 땅은 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그의 선하신 뜻으로 가득 차 있다. 온전한 속죄의 피가 이것을 영원히 보증한다.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말씀하시는 천국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들으라는 권면에 친절히 순응하는 시대가 분명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기 있는 종교에서는 듣는다는 것이 작은 부분에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과는 정 반대편에 있다. 요란한 소리, 큰 규모, 활동, 날뛰는 것들이 사람을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만든다는 피물 같은 이단적 이론을 종교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 마지막 큰 전쟁의 위기에 사로잡혔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 .”** (시46:10) 라고 하였고, 우리의 힘과 안전은 소란을 피우는데 있지 않고 잠잠한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우리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고 그가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그 다음에는 좀더 감지 되지만 아직 분명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성경을 조명하기 시작하실 때 느끼는 행복의 순간이다. 단지 소리나 음성에 불과하던 성경이 친한 친구의 말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생명과 빛이 올 것인데,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와 모든 것으로 보고, 믿고,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우주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생명이 없는 비 인격적 세계에서 교리적 성경으로 뛰어 오른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경에 적힌 말씀이 실제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며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나누어진 마음의 희생물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는 침묵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음성을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많은 종교적 불신은 진리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느낌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믿는다. 침묵의 하나님이 갑자기 성경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끝내자 어느새 다시 영원히 침묵으로 되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말씀하시고 싶은 분위기로 계시할 때 언급하신 기록으로 여기고 읽는다. 머리 속에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거룩하신 삼위의 제 2격 되시는 분(아들이) “말씀”이라고 불려진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발언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의 선포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언어 속에 담은 것인데 그 선포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

우리의 성경이 한 때 말씀 되었던 책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접근할 때 비로서 새로운 세계가 종교적 안개를 제치고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지자들은 습관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속되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분명히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한 번 태어난 아기가 계속 생존 하듯이, 또는 한 번 창조된 세계가 계속 존재 하듯이, 그 말씀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불완전한 비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죽고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사40:8) 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열심히 주를 알려고 한다면, 성경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즉시 펼쳐진 성경 앞으로 나아오라. 당신이 편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다루는 어떤 사물을 대하는 듯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나오지 말라. 성경은 하나의 물건 이상의 것인데, 한 음성이요, 한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주님, 듣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대는 시끄럽고, 수 많은 거슬리는 소리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제 귀는 피곤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3:10) 라고 주께 말하였을 때, 그가 가졌던 그 영을 제게도 주옵소서. 주께서 제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의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의 소리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주의 음색에 익숙해지고,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만이 유일한 음악 소리가 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영혼이 자세히 바라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2)

앞의 6장에서 언급한 지성을 갖춘 평범한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미리 알지 못하고 성경에 접근한다. 그는 전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성경에 대해서 증명할 것도, 변호할 것도 없다.

그러한 사람은 그 책을 얼마 읽지 않아서 어떤 두드러진 진리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 진리들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록 배후에 있는 영적 원리들이며, 그 원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벧후1:21) 거룩한 사람들의 문장들 안에 얽혀 있다. 계속 읽으면서 그 진리들이 분명해지면 그는 그 밑에 번호를 매기고, 각 번호 아래에 요점을 기록하기 원할 것이다. 그 요점들이 그에게는 성경적 신조가 될 것이다. 성경을 더 읽어나가는 것은 그 요점들을 확장하거나 보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경이 실제로 교훈 하는 것을 발견하는 중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리가 될 것이다. 성경이 믿음에 기여하는 중요성은 너무 분명하므로 그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믿음이 영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 같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나를 데려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죄 용서도 없고, 해방도 없으며, 구원도 없고, 교제도 없으며, 영적 삶도 전혀 없다.

이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도달하게 될 때, 거기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감동적 칭찬들이 그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 서신에서 믿음에 관한 능력 있는 변호를 읽었을 것이다. 나중에 만일 그가 교회 사 연구에 들어간다면, 그는 기독교에서 믿음이 핵심인 것을 보여준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이처럼 절대로 중요하다면, 또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must)**”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간에, 조만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의 여부를 마음에 물어보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디서든 발견된다면 대답하라는 질문이다.

믿음을 주제로 설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 거의 모두가 믿음에 관하여 거의 같은 것을 말한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은 성경을 진리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즐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책이나 설교의 나머지 부분은 보통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다. 기도 응답의 내용들은 대부분 실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시는 자연계의 선물들인데, 예를 들면, 건강, 돈, 육신의 보호, 또는 사업의 성공 등이다. 만일 그것을 설명하는 선생이 철학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추상론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며, 아니면 예리한 면도칼로 얇게 또 얇게 깎아내어 마침내 사라져 없어지게 하듯이, 가는 머리카락 같은 믿음에 정의를 내리고 또 다시 정의를 내리면서 심리학적 허튼소리를 우리 위에 뿌릴지도 모른다. 그의 강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실망 가운데 일어나서 “**들어갔던 똑 같은 문으로**” 다시 나온다. 확실히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성경 안에는 사실상 믿음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없다. 히브리서 11:1에서 14단어로 된 간단한 정의 외에는, 성경적 정의가 없는 것으로 나는 안다. 거기에서도 믿음은 철학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정의 되었다. 즉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히브리서 11:1은 믿음의 실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믿음을 아는데 있어서 바로 거기 까지만 가고 더 나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수단을 들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kjv) 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며, 토마스 켐퍼스(Thomas Kempis)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는 믿음의 정의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도리어 믿음을 실행하겠다.**”

이제 이후부터, “믿음은”이라는 말이나 그와 비슷한 용어가 7장에서 나올 때, 그 믿음은 믿는 자에 의해서 실천되는 실행적인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독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떨어버리고 행동으로 경험될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양상은 이론적이 아닌, 실천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다.

민수기의 극적인 이야기에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은 용기를 잃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뱀에게 물린 것에 대한 구제책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라고 하였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다. 모세는 순종하였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21:4-9).

이 중요한 역사의 한 토막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해석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청취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던 중이었다. 그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시려고, 그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4-15).

앞에서 언급하였던 그 평범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본다”와 “믿는다”가 동의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뱀을 “바라보는 것”은 신약의 예수를 “믿는 것”과 아주 일치한다. 즉,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편 마음으로 믿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gaze)”으로 결론 내린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는 이전에 읽은 성경 구절들이 생각날 것이며, 그 의미들이 홍수처럼 그에게 밀려올 것이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looked)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을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34:5).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look unto),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123:1-2). 긍휼을 구하는 시편 속의 이 인물은 긍휼의 하나님께 똑바로 시선을 두고 긍휼이 베풀어질 때까지 절대로 그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 역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하늘을 우러러(looking up to heaven)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마14:19). 진실로 예수님은 항상 그의 내면의 눈을 그의 아버지께 두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신다고 가르치셨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데 있었다 (요5:19-21).

우리가 위에서 인용한 몇몇 구절들은 영감 된 말씀의 전체 취지와 일치한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삶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교훈 할 때 이렇게 요약하였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looking unto)”** (히12:2).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한 번만 행한 행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gaze)임을 배운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주의력을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을 들 어올리고,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긴장하지 않고 그의 놀라운 인격을 꾸준히 바라볼 때 그것은 쉬워진다. 정신 산만이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번 마음이 그에게 드러지면, 약간 씩 그에게서 이탈한 후에라도, 마치 방황하던 한 마리 새가 그의 영역 안으로 돌아오듯이, 주의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 분 안에서 쉬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한가지 헌신, 즉 영원히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겠다(gaze)고 마음의 의지에서 결단을 내린 위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이 결의를 받아들이시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착란을 일으키는 수 천의 혼란들을 필히 참작하신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정해진 것을 아시며, 우리 역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영적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영적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

믿음은 자체를 거의 중요시 하지 않는 미덕이 있다. 믿음은 본질상 자체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앞만 바라볼 뿐 자신을 결코 볼 수 없는 눈처럼, 믿음은 의지 할 대상에게만 전념하며 자신에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다 - 정신 산만을 떨쳐 버린 복이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나 계속 반복하여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헛수고를 중단하고 그의 눈길을 완전하신 분께 돌릴 때

비로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가 것처럼 오랜 동안 행하려고 애쓰던 바로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음은 그 자체가 칭찬할만한 어떤 행위가 아니다. 공로는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그 분에게 있다. 믿음은 우리 시야의 방향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집중하는 시야의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한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내면으로 돌려서 자기 존중(self-regarding)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자신을 집어넣었으며, 그것은 위험스럽게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사14:13)라고 말한 사탄의 죄에 가까운 것이다. 믿음은 안을 보지 않고 밖을 보는 것이며, 전체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움으로 천국에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라”** (롬 10:8).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따라서 믿음의 복된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기 위하여 마음의 눈을 들어 올릴 때, 우리는 확실히 우리에게 향하는 다정한 눈길과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주의 눈이 온 지면에 두루 살피신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신선한 경험이 이렇게 고백한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창16:13). 밖으로 향하는 영혼의 눈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다.

“주의 모든 노력이 저에게 향하고 있으므로 저의 모든 노력도 주께로 향하게 됩니다. 주께서 모든 관심으로 끊임없이 저를 감싸고 계시므로 저의 마음의 눈이 다른 데로 돌린 적 없이 모든 주의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께서 돌이켜 오직 저를 향하시므로 제가 저의 사랑을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사랑스럽게 저를 감싸는 그 유쾌하고 즐거운 품(embrace)이 없다면, 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백년 전 쿠사 사람, 니콜라스는 그렇게 글을 썼다 (“하나님의 비전 <The Vision of god>” by Nicholas of Cusa, NY 1928 에서 인용함).

이 하나님의 옛 사람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다. 그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영적 정취를 풍기는 사람들과 그들이 대변하는 기독교 사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느낀다. 기독교 문헌들이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수용되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사고의 맥락, 즉 “교단의 방침” 같은 것에 매우 가까워야만 한다. 미국에서 반세기 동안의 이 현상은 우리를 독선적이 되게 하고 자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맹종하는 헌신을 서로 모방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말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승인된 주제에 약간의 어떤 안전한 변화를 주든지,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도 새로운 실례로 설명을 붙인다.

니콜라스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며, 예수님의 인격을 향한 그의 헌신에서 그는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학은 정통신학이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향기롭고 감미로웠다. 예를 들면, 영생에 대한 그의 개념은 그 자체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며,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운데 유행되고 있는 어떤 것 보다는, 영 안에서 요한복음 17:3에 더 가깝다. 니콜라스는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참으로 내 영혼의 은밀한 곳에서 까지도 나를 보시는 시선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그 복된 관계가 없다면, 영생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고, 나누어 주시는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불타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심으로 저를 먹이시고, 먹이시므로 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며, 타오르게 하심으로 제가 기쁨의 이슬을 마시게 하시고, 마심으로써 제 속에 생명수를 부어 넣으셨고, 부어 넣으시므로 말미암아 생수가 불어나고 지속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by Nicolas 중에서).

이제 믿음이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gaze)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하여 내면의 눈을 드는 것 뿐이라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쉽게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라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아두신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에서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어도 합당하다. 예를 들면, 믿음의 단순성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므로, 그것은 특별한 장비나 종교적 소지품 같은 것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생사의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돌발적인 변화에 결코 지배 받지 않도록 조처하셨다.

장비는 부서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며, 물은 새어버릴 수 있고, 기록들은 불에 소멸될 수 있으며, 성직자는 늙어질 수 있고, 교회는 불타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에게 있어서 표면적인 것이며, 돌발 사건이나 기계적 결합에 영향 받는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마음에 속한 것이며, 누구든지 서있는 채로나, 무릎 꿇고서나, 교회로부터 수 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누워서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는 어느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초승달이 뜰 때나, 거룩한 날이나, 안식일에 의존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말하자면, 사람은 그가 8월 3일 토요일이나, 10월 4일 월요일에 있을 때 보다는 부활절 주일 날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보좌에 앉으시려는 한 매일이 좋은 날이며, 모든 날들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을 믿는 복된 일에 있어서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들어 올려 예수님께 의지해 보라. 그러면 그 현상이 쾌적한 침대열차의 침대 위거나, 공장이거나, 부엌이나 관계 없이 당신은 즉시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확정되면, 어디서든지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제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질문 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받은 소명의 성격대로 조용한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수도사나 성직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바쁜 노동자이며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적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설명하는 삶이 소명에는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기쁘게 말한다. 사실상, 그것은 많은 중노동 사람들이 매일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할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비밀을 발견해 왔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내적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는 습관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 땅의 업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던 주의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때에라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된다. 그들이 몰두하는 업무 중에서 잠시라도 그들의 주의력을 느슨하게 해주어 보라. 그러면 그 주의력은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한다. 이것은 수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되어 왔으며, 너무 많아서 비록 누구에서부터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간증 되어 왔는지를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그 간증들을 인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겠다.

나는 일반적 은혜의 수단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개인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오랜 시간의 성경 묵상은 우리의 시선을 맑게 하고 방향을 잡아줄 것이며, 교회 출석은 우리의 전망을 넓히고 다른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배와 사역과 활동,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며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저변에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적 습관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한 쌍의 새로운 눈이 우리 안에 개발 됨으로써,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의 광경을 목격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약의 “우리”라는 단어를 자기 본위의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아주 균형이 깨진 개인종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할지도 모른다. 백대의 피아노가 모두 같은 음차(소리굽쇠)에 일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자동적으로 조율 되었기 때문에 그 같이 일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백대의 피아노는 자기들끼리 서로 조율 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다른 표준에 의해서 그 표준에 일치하도록 각각 조율 된 것이다. 그와 같이, 각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함께 모인 백 명의 예배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 “일치” 되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신자들끼리 서로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까운 친교를 가지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그들의 눈길은 하나님을 외면한다. 사회적 종교는 개인종교가 정화될 때 온전하게 된다. 몸은 각 지체가 건강할 때 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온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보다 더 좋고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할 때 향상된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삶의 온전한 헌신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만이 여기까지 읽을 수 있었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약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잘 어울리는 영적 삶의 새로운 단계로 안내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찮은 임무의 낮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삶의 최고로 높은 선(summum bonum)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있다. 인간과 천사들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의 형태로도 더 좋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모든 이성적

요망의 절대 극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 by Nicolas 중에서).

오 주님, 저는 제 눈길을 주께 돌려서 만족해지라고 초청하시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거기에 순응하기 바라지만, 죄가 제 눈을 흐려서 주를 보기에는 희미할 뿐입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기꺼이 저를 씻어 주사, 제 속을 깨끗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이 땅의
순례 길을 가는 모든 날들에서 벗겨진 눈으로 주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겠나이다.
주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타나실 그 때, 저는 영광이 충만한 광채 속에서 준비된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회복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5)

자연계의 질서가 서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각 사물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적인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간 서로의 관계가 망가진, 즉 근본적인 도덕적 혼란에 있다고 나는 앞장의 글들에서 이미 암시한 바 있다. 인간의 타락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태도를 취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직 몰랐던 참된 행복이 간직 되어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파괴하였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즉 인간과 그의 창조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영적 삶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변화로 시작될 것인데, 다만 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죄인의 전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의식적이고 경험적인 변화로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속죄가 그러한 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을 감격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탕자 이야기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 탕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당한 신분을 버리고 자신에게 막대한 고난을 불러들였다. 삶의 밑바닥에서 그가 다시 회복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였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확립된 것을 말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본래의 관계는 그가 죄의 성품으로 반역한 행동 때문에 잠시 동안만 변했던 것 뿐이다. 이 이야기는 구속의 합법적인 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체험적인 면을 아름답게 분명히 보여준다.

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다른 것들을 측정하는 고정된 중심 점이 어딘가에 있음에 틀림없는데, 그것은 상대성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다만 “스스로 존재한다(IS)”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무엇도 고려에 넣지 않는 기준점이다. 그러한 중심 점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리려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I AM)” 라는 표현(영문 대문자에 유의-역자주) 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실 수 없었다. 그가 일인칭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I AM)”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를 말할 때는 “그가 계신다(He is)”라고 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할 때에는 “주께서 계시나이다(Thou art)”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은 그 고정된 중심 점인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측정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I am that I am),” 또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항해사가 바다에서 육분의(태양의 위치로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는 기구-역자주)로 태양빛을 바라보면서(shooting the sun)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도덕적 위치를 측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바른 위치에서 있을 때만, 오직 그 때에만 우리는 올바르며,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있는 한, 그만큼 멀리, 그만큼 오래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많은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존재 하심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히 시도한다. 육신은 하나님의 엄한 선포에 대해서 울먹이며 호소하고, 아각(Agag)이 작은 공홀이나마 바랐던 것처럼(삼상15:32), 육신적 방법의 관용을 약간 기대하면서 구걸한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만이 바른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됨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가장 환희의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Godhead)을 경외함으로 찬미하는 때일 것이다.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도 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라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 배후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언급한 순서 대로 먼저, 지위와 위치 상으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엄과 영광에서는 높이 들리셨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게 하였고,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그로부터 나와 존재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4:11).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닮고 인간이 인간 닮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완전한 주가 되시고 우리는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주신 힘으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릴 의무가 있다.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슬픔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위에 계신 독특한 지위로 드높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경건한 복종의 현장에 우리 전체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계속해서 높이 올려드리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지상의 유원지에서 빠져 나온다. 우리는 세상 방법들에 적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새롭게 보는 법을 익힐 것이며, 새로운 심리 상태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한 새로운 힘이 끌어올라 발산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화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 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받는 존경은 얼마나 형편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통 사람을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의 입장이 드러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개인적 욕망,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인간에, 이들 두 가지 중에서 어느것을 택하겠느냐고 다그쳐 물어보라. 그러면 매번 하나님은 두 번째 위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우선하는 것들은 위에 계신 분 보다도 더 높여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항의할지도 모르지만, 그가 평생 동안 매일의 생활에서 내린 선택들이 그 증거이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시21:13 또는 Crosby의 찬송가 제목-역자주) 라는 표현은 승리를 거둔 영적 체험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보물이 들어있는 곳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이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이다.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생명과 입술을 하나로 하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하자. 그러면 수 많은 소소한 문제들은 즉시 해결될 것이다. 그의 크리스찬 생활은 복잡하던 일이 없어지고 아주 단순하게 된다. 의지적 훈련에 의해서 그는 그의 진로를 정하고, 마치 자동 항공 장치의 안내를 받는 조종사처럼 그 진로를 유지할 것이다. 만일 어떤 강한 역경의 바람에 밀려 잠시 그 진로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영혼의 신비스러운 성향에 의하여 다시 본 진로에 확실히 들어설 것이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활동은 그에게 유리하도록 역사하고 있으며, “**별들이 그것들의 궤도에서**” 그를 위해서 싸워준다(삿5:20). 그는 그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였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잇달아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떠넘기면 인간 존엄성의 어떤 부분이라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지위가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고귀한 영예의 올바른 지위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큰 수치는 그의 도덕적 혼란과 무리한 권리침해로 하나님의 처소를 차지한 것이다. 그 도독질한 왕좌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의 명예는 입증될 것이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높이 드림으로써 그는 높이 들려진 자신의 최고의 명예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이의 의지에 항복하는 것을 꺼리는 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8:34).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의 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이다. 죄인은 자기 몸의 지체들을 주장하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자기가 독립되어 있음을 자랑한다.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자는 잔인한 주인을 버리고 친절하고 온유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새 주인의 명예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때처럼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거주지였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옛적 아름다운 거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온 평온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고귀함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올바른 논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나는 바란다.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에 의하여 (우리 마음의) 그 거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동안, 우리 삶의 여정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우리 마음의 위대한 결정,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다 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뒤죽박

죽이 된 질서를 회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삼상2:30). 하나님 왕국의 그 옛 법칙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채 지금도 유효하다. 성경 전체와 역사의 매 장이 그 법의 영속성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옛 법과 새 법을 조화시키고, 사람을 다루시는 그의 방식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시면서(동일한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심-역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12:26).

어떤 사물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 정 반대 편에서 보는 것이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약속과 직무로서 제사장 직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이 직분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리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신다. 엘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상호작용의 영화로운 법(this law of reciprocal honor: 약속의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이 버림받았을 때 심판으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법-역자주) 이 은밀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가 왔다. 타락한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엘리의 두 아들)가 전장에서 쓰러지고, 홉니의 아내는 출산하면서 죽었으며,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법제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으며, 나이 많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처참한 비극이 엘리의 실패에 뒤따랐다.

이제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쓴 성경의 인물들 누구에게나 위의 내용을 비교해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몰랐던 복을 내리실 때, 그는 얼마나 결점들을 눈감아주시고, 얼마나 실패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셨는가 보라.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니엘, 엘리야 또 그 밖에 누구든지 비교해보라. 마치 씨를 심어 수확을 거두듯이 영광에는 영광이 뒤따랐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드높이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의도를 보였으므로 (엘리의 경우와는 다른) 그러한 차이가 생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법칙을 간단하면서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그는 비천한 인간으로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시므로 즐거이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8:54).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이 법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으므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 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요8:49-kjv).

예수님의 다른 말씀 중에 가장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신 말씀은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5:44) 만일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려고 열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라는 놀라운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 불신의 뿌리에 있는 죄가 아닐까? “지능을 요하는 어려움(intellectual difficulties)”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을 숨기려는 연막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열망이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또 바리새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관여하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종교적 자기 의와 헛된 예배의 은밀한 배경이 아니겠는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나는 믿는다. 인생의 전체 여정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써 혼란스러워 진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저주가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인생들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며, 특별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마음에 단호히 결심하는 인생들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큰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그들에게서 발견하신다. 하나님은 방해 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을 향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

이같이 말할 때에 나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의지를 끌고 간다” 라고 잘 못 확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God-above-all)”이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는 그리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제일주의를 실천하려는 “마음의 의지(will)”의 동기가 없이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마음의 생각(mind)”만으로 찬성할 수 있다. 마음의 생각(mind)이 주는 상상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마음의 의지(will)는 뒤에서 꾸물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나뉘어 있는지를 (생각과 의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역자주) 전혀 추측하지 못한다. 마음이 어떤 실질적 만족을 알 수 있기 이전에 전 인격이(지정.의가 함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원하시므로 우리 전체를 취하시기 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의 한 부분만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말 마다 뜻을 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성실하게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징후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눈 앞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자신의 모든 보화를 그러한 사람의 뜻대로 되도록 내 놓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거룩하게 된 자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여, 제 모든 소유물 위에 높이 들리소서. 저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면, 세상의 어떤 보화도 제게는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친근히 여기는 주여,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한 가운데서 버림받고 고독한 자리에 서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모든 것 위에 높이려고 작정하였나이다.

주여, 저의 안락함 위에 높이 들리소서. 비록 그것이 육신이 안락함을 잃는 것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일지라도, 저는 주앞에 드린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주여, 나의 명예 위에 높이 들리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열망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 결과로 제가 낮은 신분으로 떨어지고, 꿈에서와 같이 제 이름이 잊혀질지라도 허락하소서.

오 주여, 일어나 주의 온전하신 영광의 자리에 오르소서.

제 모든 열정 위에 오르시며, 저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모든 것 위에, 제 가족과 건강과 제 자신의 생명 위에까지 라도 오르소서. 저는 쇠하여지고 주는 흥하여지게 하소서.

주께서 모든 것 위에 들리시도록 저를 낮아지게 하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실 때 작고 겸손한 짐승,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저를 타고 나아가셔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던 그 소리를 저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온유와 안식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5)

인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의 의미를 뒤집어서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8복에 나타난 선행의 정 반대가 바로 인생의 삶과 행위를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말씀하신 그 어느 선행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대신에 우리는 자만심의 극치에 있음을 보게 되고, 애통하는 대신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 들임을 보며, 온유한 대신 거만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대신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계3:17)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긍휼이 여기는 대신 우리는 무자비함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대신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화평케 하는 대신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내는 것을 보고, 꺾박 속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맞대결 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문명사회는 이러한 도덕적 폐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분위기는 그 폐물로 가득 차있고, 우리는 매번 그것을 숨쉬며 모태로 부터 가지고 나온 그것을 마시고 있다. 문화와 교육이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 모든 문명계는 이러한 인생의 삶이 마치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것들이 삶의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는 악들임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울 뿐이다. 모든 우리의 번민과 수 많은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죄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교만, 거만, 분개, 악한 생각, 악의, 탐욕 같은 것들은 죽을 몸을 괴롭혀 온 어떤 질병들 보다도 더 큰 인간 고통의 근원들이다.

그러한 인간 세상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놀랍고도 기이한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훌륭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것처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의 말씀은 진리의 핵심이다. 그는 견해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절대로 견해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는 결코 추측하지 않으셨다. 그는 아셨고 또 알고 계신다. 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한 것처럼, 바른 지혜의 종합이거나 예리한 관찰의 결과들이 아니다. 그는 신성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이다. 그는 완전한 권위로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복을 수여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복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성취보다도 더 강력한 행동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이다.

예수님께서 가끔 그러하셨듯이, 간결하고 분명한 문장에서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이어서 그 말씀을 설명하셨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온유에 대하여 더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11:28-29). 여기서 우리는 무거운 “짐”과 “안식”이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본다.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개인에게 지워지는 특별한 짐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이다. 그 짐은 정치적 압박이나 가난이나 힘든 노동의 짐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 짐은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자도 느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재물이나 한가함이 결코 우리를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고 있는 그 짐은 무겁고 짓누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짐”의 의미는 무겁게 지고 가도록 짊어 지운 것, 또는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져야 하는 힘든 짐을 뜻한다. 그리고 “안식”은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쉬는 것을 뜻한다. 그 안식은 우리가 행할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함이신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우리의 짐을 검토해 보자. 그것은 전부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직 안에서부터 발생하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며 육신에 까지 이른다. 첫째로, 교만의 짐이 있다. 자기 사랑의 노력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다. 당신이 슬펐던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생긴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당신 자신을 당신이 충성해야 할 작은 신으로 모시는 동안에는 당신의 우

상을 모욕함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내적인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매년 당하는 무시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진 노력, 친구나 원수의 나쁜 견해로부터 자신의 아주 까다로운 명예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결코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 보라. 그러면 그 짐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땅에 속한 아들들은, 거슬리는 말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고, 모든 비판에 굽실거리며, 상상해서 모욕하는데 분개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기를 얻으면 밤 잠을 설치면서 계속 이 짐을 지고 간다.

이와 같은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안식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온유가 그의 방법이다.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자기 보다 더 큰가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존경이란 얻으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오래 전에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그는 온화한 유머를 개발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익힌다. “오, 네가 그렇게 무시 당했나? 그들이 다른 사람을 너 보다 더 높였다고? 그들이 너를 아주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인다고? 그래서 이제 너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상처 받느냐? 바로 어제 너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기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티끌의 벌레일 뿐이라고 하였지. 네 언행일치는 어디에 있니? 자, 이제 그만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열등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다. 도리어 그는 도덕적 생활에서 사자처럼 담대하며 삼손처럼 강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농락 당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다. 그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천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그의 표어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만족하며 쉬고 있다. 그는 모든 것 자체의 가격표가 정해지고, 참가치가 각각 드러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는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영혼이 쉼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온유함으로 걸어갈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도록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려던 옛 갈등은 끝이 났다. 그는 이제 온유함이 가져오는 평안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그는 “가면 (pretense)”의 짐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 내면의 실제적 빈곤은 세상에서 감추려고 하는 공통된 인간의 욕구를 뜻한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많은 사악한 속임수를 써왔는데 그 중 하나는 잘못된 수치심을 우리 속에 주입시켜 넣은 것이다. 인상을 고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체가 드러나는데 대한 두려움은 설치류(쥐, 토끼)처럼 마음 속에서 감아댄다. 교양 있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더 세련된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따라다닌다. 배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박식한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한다. 부자는 그의 옷이나 자동차나 집이 언젠가 다른 부자의 것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 소위 “사회”라는 것은 이 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동기에서 움직이며, 가난한 계층은 그들 수준에서 보면 부자들 보다는 약간 더 나을 뿐이다.

아무도 이 문제를 웃어넘기지 말게 하자. 이러한 짐들은 실제적이며, 그것들은 사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속는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년간 고안된 심리학은 참된 온유가 마치 꿈에서나 보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별들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 이 질병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모든 희생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마18:3).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관련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안다. 다만 그들이 자라고 죄가 그들 속에서 휘젓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질투하기 시작하며 시기가 나타난다. 그럴 때, 만일 다른 사람이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그들의 유약한 영혼에 그 괴롭히는 짐이 지워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그 짐이 결코 벗어지지 않는다.

짐의 또 다른 근원은 “인위적으로 꾸밈(artificiality)”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이 소홀히 하여 우연히 어떤 원수나 친구가 자신의 빈곤하고 공허한 영혼을 엿보게 될 것이라는 은밀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가 없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평범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므로 덮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때문에 긴장하고 경계한다. 여행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결코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을 설명할 수 있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같은 사람을 만날까 하여 두려워한다 (Marco Polo는 13세기 베니스 상인으로써 24년간 아시아와 중국을 다녀온 후 최초로 유럽에 아시아와 중국을 알린 사람-역자주).

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우리가 가진 죄의 슬픈 유산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전체 생활방식은 이것을 더욱 악화시켰다. 광고물은 이러한 가면의 습관에 기초하여 널리 선전되고 있다. 학문의 이런 저런 분야에서 “교육과정”이 제공되는데, 솔직히 속아서 점점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파티에서 빛을 내고 싶어하는 열망에 흥미를 끌면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나타내려는 이 열망을 계속 이용하여서, 책들과 옷과 화장품들이 팔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하나의 저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은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저주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전부가 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 모습은 우리가 관심을 끌던 단계보다 훨씬 낮아진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죄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색다르게 보이려는 악한 욕구만이 본래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보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 걸치레와 가면의 짐에 짓눌려 있다. 그리스도의 은유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런 짐에서 풀려날 수 없다. 좋고 예리한 이론이 약간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 악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곳으로 밀어 넣으면 다른 곳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모든 곳에 있는 남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제공하시는 그 안식은 은유의 안식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꾸미기를 중단할 때 찾아오는 복된 휴식이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새롭고 쉬운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을 배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라고 하였고, 우리가 그 멍에의 한 편에서 매면 주님은 다른 편에서 매고 같이 걸어가신다.

주님, 저를 어린 아이같이 되게 하소서. 지위나 명성이나 신분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충동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꾸밈없기를 원합니다. 걸치레와 가면에서 저를 건지소서. 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을 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의 참된 평화를 발견하도록 도우소서. 주 앞에서 제 자신을 낮추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주의 쉬운 멍에를 제게 지워주시면, 그 멍에를 통하여 안식을 얻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생활로 행하는 성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크리스찬이 직면하는 내적 평안의 가장 방해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우리의 삶을 두 영역, 즉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습관이다. 이 두 영역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상상하고, 우리가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항상 이 영역에서 저 영역으로 억지로 왔다 갔다 해야 할 때, 우리의 내적 삶은 쉽게 혼란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일치된 삶 대신에 양다리 걸친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고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동시에 두 세계, 즉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인간성, 즉 육체와 연약함과 병약함의 한계 아래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해 동안 힘든 일을 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색다르고 차원 높은 삶을 즐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즐긴다.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부분의 활동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첫 번째 활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확신으로 실행되어진다. 그 활동은 거룩한 행실인데, 그들이 평소 생각하듯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찬송 부르고, 교회출석 하며, 믿음으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적 활동들은 이 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로 알려질 수 있으며,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세계,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고후5:1) 이라는 다른 세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거룩한 활동과 대조되는 것이 세속적 활동이다. 세속적 활동은 아담의 후손들, 남녀들이 함께 공유하는 모든 보편적 삶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먹고, 자며, 일하고, 보며, 이 땅에서 단조롭고 지루한 임무들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사과하면서, 이런 세속적 활동을 가끔 불안한 가운데서 마지못해 행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대부분 꺼림칙한 마음을 가진다.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시름에 잠긴 채 자신에게 말하기를, “땅에 속한 육신의 껍질을 벗고 이 세상의 일들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될 더 좋은 날이 올 테지” 라고 하면서 일반 업무들을 진행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해묵은 거룩-세속의 대립(the old sacred-secular antithesis: 거룩한 활동과 세속적 활동을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역자주)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함정에 빠진다. 그들은 이 두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만족할 만한 적응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팽팽한 밧줄을 타면서 어느 쪽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빠졌고, 그들의 전망은 혼란스러우며, 그들의 기쁨은 떠나갔다.

나는 이런 상황의 상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딜레마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므로 생긴 것이며, 그 해묵은 거룩-세속의 대립은 신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진리를 보다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그 딜레마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데, 그는 서로 분리된 삶을 알지 못하셨다.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그는 유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까지 정신적 긴장 없이 이 땅에서 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체 삶의 희생을 받으셨고 그가 행하셨던 때 활동과 활동 사이를 구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요8:29)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하여 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두루 행하실 때 균형 있고 평온한 모습이셨다. 그가 인내로 겪으신 압박과 고난은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의 신분 때문에 생긴 것이지, 결코 도덕적으로 불확실 하거나 영적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라는 바울의 권면은 경건한 이상주의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 권면은 거룩한 계시의 필수요소이며, 곧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앞에 열어주는 권면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전 궁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였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작은 특권을 보잘 것 없는 짐승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만일 이 보잘 것 없는 동물적 행동(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영광 돌리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다.

기독교 초기의 어떤 경건한 작가들은 인간의 육체를 수도사같이 금욕해야 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너무 심하게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일반적 정숙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암전한 체하는 것이나 거짓된 수치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여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당연한 사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의 암시를 이끌어내려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으로 거하셨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은 한번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적 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육체 안 어딘가에 선천적으로 신성을 거슬리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악한 개념을 영원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는 마땅히 행할 책임을 그 육체에 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만드신 창조물(육체)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남용, 오용, 악용하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부끄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죄 안에서 본성을 거슬리며 행하는 육체의 활동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어디서든지 인간의 의지가 도덕적 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깨끗하고 악의 없는 능력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신 창조주께 결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남용하고 왜곡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남용과 악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회개와 중생이라는 쌍둥이 기적이 삶 속에 일어난 기독교 신자를 생각해 보자. 이제 그는 기록된 말씀에서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간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은 기도나 세례나 주의 만찬에서처럼 진실로 신성하다 혹은 그렇게 신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 모든 활동을 쓸모없는 수준으로 하락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행위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 올려 넣어서 전체의 삶을 하나의 성례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성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 표현이라면, 우리는 이상과 같은 논리를 받아들인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의 행동으로써 우리는 이어지는 행위들이 그러한 거룩한 구별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비천한 짐승에 타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일생동안 태우고 가는 몸의 종인, 우리의 육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쓰시겠다” (눅19:34)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체에도 잘 적용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옛적 그 초라한 짐승이 행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으며, 무리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외칠 기회를 주게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만일 우리가 그 거룩-세속 대립의 깊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의 피 속에 흘러”야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생각의 성격을 지배하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실제로, 단호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 진리를 목상하고, 가끔 우리의 기도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할 때 자주 그것을 마음 속에 회상함으로써, 진리의 놀라운 의미가 주는 판단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해묵은 그 대립성 딜레마는 일치된 평온한 삶 앞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지식, 그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되 아무 것도 거절하실 것이 없다는 지식은 우리의 내적 삶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성한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랫동안 익혀진 습관은 쉽게 죽지 않는다. 거룩-세속의 이중 심리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성을 갖춘 생각과 경건한 기도가 많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의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보통 크리스찬들이 가진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때로는 옛 논리(거룩-세속의 대립)가 그의 머리 뒷편에서 떠올라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리고 옛 뱀, 곧 마귀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크리스찬들이 그 날의 더 좋은 부분을 이 세상 일에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시간 중에서 약간의 부분만 종교적 의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택시 안에서, 책상에서, 전문 분야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크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태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마음의 낙심과 침울함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다만 과감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하나님께 드러야 하고 또 그가 그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 그러한 입장을 굳게 지키고 밤낮으로 매일의 시간마다 일어나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교류(transaction)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라. 개인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 행동을 취할 작정이라고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드리라. 그런 다음,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 떠오른 마음의 소원의 기도들(a thousand thought-prayers)을 그 시간에 보태어 간구하라 (“a thousand thoughts”: 끝내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을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스웨덴의 민요 제목-역자주). 모든 행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 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을 실습하자. 우리의 단순한 모든 행위들 안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곳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배우자.

이제까지 검토한바 대로 동시에 공존하는 잘못된 처지(형편 또는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기록-세속의 대립이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고서도 여전히 어떤 처지(형편 또는 장소)는 특별히 기록하고 다른 처지(형편 또는 장소)는 기록하지 못하다고 믿는 것은 좀 놀랍다. 이러한 잘못된 너무나 널리 퍼져있어서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굉장한 외로움을 느낀다. 그 잘못된 마치 물감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종교적인 사람의 생각을 물들이고 그의 눈까지도 물들었으므로 그것의 잘못된 사상을 감지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을 반대하는 신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거슬리면서, 그 잘못된 수 세기를 걸쳐서 말해졌고 노래로 불렸으며, 대부분이 분명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 몇세지의 한 부분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내가 아는 바로는, 퀘이커 교도들(the Quakers)이 그 잘못을 보는 지각이 있었고, 그것을 폭로하는 용기를 가졌었다 (the Quakers는 16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적 분파로써 사제나 교회의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형식을 버리고 성경말씀을 따라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였음-역자주).

여기 내가 아는 사실들이 있다. 사백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Egypt)에 살면서 매우 어리석은 우상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마침내 거기서 빠져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기록함의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시려고 하나님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셨다. 그는 지상의 불과 구름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중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불 같은 형태로 지성소 안에 거하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별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함과 기록하지 못함의 차이점을 가르치셨다. 기록한 날들, 기록한 그릇들, 기록한 옷들이 있었다. 씻는 것, 희생제물, 많은 종류의 헌납이 있었다. 이런 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록하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물건이나 어떤 장소의 기록함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기록하심이 그들이 배워야만 하는 과제였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위대한 날이 왔다. 그는 즉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들이 말한 바 . . . 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 (마5:27-28 kjv)라고 하셨다(한글 개역에는 “옛 사람들이 말한 바”가 빠져있음-역자주). 구약식 수업은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지성소는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 .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4:21,23-24).

오래지 않아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여론의 소리를 듣고서, 모든 고기는 정결하고, 모든 날들은 기록하며, 모든 장소가 신성하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때와 장소의 신성함,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필요하였던 어슴푸레한 빛은 영적 예배라는 밝은 태양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예배에 필수적인 영성이 교회의 소유로 남아있었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서서히 없어져버렸다. 그 다음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본래의 율법 준수 정신이 옛적 구별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다시 날들과 계절과 때의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어떤 장소가 정해지고 특별한 의미에서 그 곳을 기록하게 구별하였다. 이 날과 저 날, 혹은 장소와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지켜졌는데, “성례”가 처음에는 두개였고(세례와 성찬-역자주), 그 다음 세 개, 네 개로 이어지면서 결국 로마 카톨릭의 엄격으로 일곱 개까지 구별하여 정했다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성사라고 하며, 세례, 전진, 성체, 고백, 혼인, 신포, 병자성사의 일곱 대 성사가 있다-역자주).

아무리 잘못 인도했을지라도, 어느 크리스찬을 매정하게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랑으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마 카톨릭교가 오늘날 그들의 논리적 결론에 밀받침이 되는 “기록-세속 이교사상(the sacred-secular heresy)”(기록과 세속을 혼합 시킨 이교사상-역자주)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의 치명적인 영향은 종교와 생활을 완전히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생각의 논리적 본능이 너무 강하므로 많은 각주를 달고 여러 가지의 설명으로 그 속임수를 회피하려고 시도한다. 실제 생활에서 종교와 생활의 별도 분리하는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 청교도, 신비주의자들이 수고하여 왔다. 오늘날 보수주의 진영의 경향은 그러한 속박으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불붙는 마구간에서 구출된 말이 때로는 이상한 고집으로 구원의 손길을 뿌리

치고는 불에 타 죽으려고 마구간으로 되돌아 들진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것처럼 잘못으로 향하는 고집스러운 추세로 우리 시대의 정통파 기독교는 영적 노예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순절(Lent)”, “수난주간(holy week)”, “성 금요일(good Friday)” 이런 말들이 복음적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더욱 더 자주 들려온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이 잘못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며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역자주) 매일 생활에서 행하는 행위가 특별한 성례가 되도록 연관시키려 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내 주장의 긍정적 의미와 대조하여 내 주장이 아닌 것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내 주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과 똑 같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선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행위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의 다른 행위와 크게 다를 수 있다. 바울의 천막수선 하는 일은 그가 로마서 기록하는 일과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둘 다 받으셨고 둘 다 예배의 참된 행위였다. 물론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만큼이나 거룩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또, 내 주장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 만큼 동일하게 유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에서 은사들은 다르다. 교회와 세계에 끼친 단순한 유용성 때문에, 빌리 브레이(Billy Bray: 19세기 잉글랜드의 경건한 설교자)가 루터(Luther)나 웨슬리(Wesley)에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은 은사를 받은 형제의 봉사는 더 큰 은사를 받은 자의 것 만큼이나 순수하며, 하나님은 동일한 기쁨으로 두 봉사를 다 받으신다.

“평신도”는 결코 그의 작은 임무를 그의 목회자의 것 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각 사람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 안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 그의 사역은 목회자의 사역만큼이나 신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일이 신성한가 아니면 세속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자 그러면 그 후부터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생활 자체가 성례적(sacramental) 이고 온 세상이 (성례를 행하는) 하나의 거룩한 장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 전체는 제사장적인 직무가 될 것이다. 그가 결코 쉽지 않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다”** (사6:3)라는 스랍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제가 주님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밖에는 어느 것도 소유함이 없는 것을 느끼기 원하나이다. 저는 지속적으로 주의 임재의 그늘에 머물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안식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저의 모든 생각이 주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고 저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주의 위대하신 옛 종의 말을 빌려 기도하나이다. “주님 은혜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제 마음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시사 주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제게 허락하실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The End -